

2018 여선교회 수련회

말씀이
말씀으로
여기사는
삶

강사: 이동진 목사

2018년 4월 2일(월)-3일(화)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말씀, 영적의 말씀, 들려오는 말씀
숨겨놓은 말씀, 나타내신 말씀, 천국부의 말씀, 자욱어는 말씀

월간 아가페 제409호 2018년 4월호 발행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4347 FAX (718) 886-5555

PNEUMA
Worship

프누마 워십
FRIDAY 7:30PM
퀸즈장로교회

FACEBOOK/PNEUMAWORSHIP
INSTAGRAM/PNEUMAWORSHIP

2018.4.1 주일 찬양예배

예수 승리하셨네!

참가팀:
두드림 하늘문이 열리고
헤리테이지 사랑해요
블레싱 기뻐하라 / 호신나, 호산나
킹즈 십자가 그늘 밑에 / 주 달의 죽은 십자가
팔로리아 부활의 새벽 / 예수
그레이스 온세상 알게 / 빛으로 살아가리라

4.1 주일오후 4PM 본당

GOD'S WILL KAPCQ

이제는 떠나서 연회장에게
갓다 주라 하시며 갓다 주었더니

위대한순간
[요한복음 2장 19절]

갓즈윌 (God's Will) 청장년부
1박2일 수련회

강사: 김성국 담임목사님
연재: 4/토(금)-4/7(토)
장소: Liebenzell Retreat Center
13 Heath Lane, Long Valley, NJ 07853

2018년 표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퀸즈장로교회

4월 전도의 달 KAPCQ CHRISTIAN MAGAZINE

Agape
아가페 愛加倍·Агапэ

사순절 특집 |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전도의 달 칼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전도의 달 간증
전도하며 누리는 행복감
부활절에 대한 바른 이해

2018 선교 오리엔테이션
스테반 안수집사회 죽 섬김
죽 쏜 하루, 기쁘지 아니한가
프누마 워십 (PNEUMA WORSHIP)
뉴욕의 청년들을 부르는 예배

2018. 4 www.kapcq.org




십인(十忍)을 넘어

선배 목사님이 본인이 지은 책을 제게 선물하면서 그 책 앞에 **忍(인)** 이라는 단어를 써 주셨습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참는 것이요, 목회는 참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 보다 더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부목사시절 우리 교회에 부흥회에 오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十忍(십인)**을 가슴에 새기고 산다고 하였습니다. “열 번만 참자. 열 번까지 참자.” 그랬더니 대부분의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길 수 있으셨답니다.

십인(十忍)을 넘어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를 넘어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부활의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오래 참음이 최후승리의 길입니다.

담임목사 김성국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Beyond being patient ten times

One of my friends at seminary gave me as a gift a book he had written. On the cover he wrote a chinese character ‘忍’(patience). Meaning, we have to be patient. He made me realize that the Christian life and ministry is about being patient.

I met somebody who is even more patient than that. When I was serving a church as an associate pastor, he came as a guest speaker at one of our church revivals. He said, he bore two Chinese characters, ‘十忍’(being patient ten times) in his heart. “Let’s be patient just ten times, just ten times.” He said, when he did so, he was able to overcome the most difficult times of his life.

There is a word that is beyond this word “being patient ten times”. It is, “persevering patience,” which is a fruit of spirit. The persevering patience endures not just ten times, not just twenty times, but without ends.

Just as Jesus showed, persevering patience is the way to final victory.

Десятикратное терпение

Один мой знакомый пастор, написал книгу, подписывая для меня он написал всего одно слово: “терпение”. Он хотел сказать, что вера это терпение, пастырское служение это терпение.

Еще один пастор, когда я был помощником пастора, он приезжал к нам на служение, говорил: “Я живу с десятикратным терпением в сердце, будем терпеть до десяти раз. Только до десяти раз”. Если так, то можно победить все трудности в жизни.

Есть слово о “десятикратном терпении”. Это один из плодов Святого Духа - “долготерпение”. Долготерпение- это терпеть десять раз и двадцать, терпеть до конца.

Так же, как наш Господь воскресения, Иисус Фристос.

Долготерпение это путь победы.

经历十忍

一位前辈牧师将他自己亲自写的书当作礼物送给我，并在那本书的第一页写了一个忍字，告诉我要忍耐的意思。信仰是一种忍耐，并唤醒了自己，其实牧会也是需要忍耐的。

相比那位前辈牧师，还遇到另外一位牧师。他是我曾经担任副牧师时期，来过我们教会参与复兴会的一位牧者。他分享说自己将十忍刻在心板上生活。忍耐够十次，忍耐到十次，结果大部分艰难的事情都被战胜了。

经历了十忍，神的话显明说，圣灵所结出的果子就是“恒久忍耐”。恒久忍耐不只是忍耐十次也好，还是二十次也罢，而是一直一直忍耐。

复活的我们的主耶稣就是如此行，因为恒久忍耐是最终得胜的道路。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은 4행시!

한나선교회 회장 황은애 권사



할렐루야!!

한나 선교회에서는 3월달 월례회에서 회원들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4행시 대회를 하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한나선교회원들의 마음을 통하여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아가페에 올려드립니다.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라위해 기도하고
선한 마음으로 선교에 힘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력키 7번 팀

한걸음, 한걸음
나의 걸음 인도하신
선물같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나만이 아닌 모두로,
선하고 아름답고 총만함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소서!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한 성령안에서
선교회 이름으로 모여
교제하며 믿음을 나누는
멋진 한나 선교회!

아가페

제409호
2018.4

4월 교회 광고

여성교회 수련회
1) 일시: 4/2 (월) - 3 (화)
오전 10:00 - 오후 3:30
2) 강사: 이동진 목사
3) 주제: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삶
4) 장소 : 본교회

갓즈윌 청장년부 수련회
1) 일시: 4/6 (금) - 7 (토)
2) 주제: Amazing Moment! (요 2:8)
3) 강사 : 김성국 목사
4) 장소: 뉴저지 리벤젤 수양관

2018 단기, 중기, 실버 대원 모집 안내
1) 선교지: 카작스탄, 캄보디아,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케냐, 중국, 아리조나, 할렘, 일본(중기)
2) 훈련일정: * 안경 사역 훈련 (4/5부터 매주 목요일) *언어 훈련(서반아어, 러시아어, 중국어)
3) 일시: 7월중
4)마감: 4/8(주)
5) 문의: 정길표 장로, 이정훈 집사

새성전 건축 및 선교를 위한 세무봉사
접수 2주 후 세금보고 완성, 수익금 전액 새성전 건축 기금으로 봉헌.
기간: 2/18(주)~4/8(주)
매주일 오후 1:00~3:30분
장소: 205호
문의
정재윤 집사

- 2 신앙시론 | 십인 (十忍) 을 넘어
- 5 러시아어권 예배부 |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전도집회
- 6 송이꿀 같은 말씀 |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
- 8 2018년 3월 | 담임목사 설교요약
- 9 추천도서 - 평양 대부흥운동 | The Next Christendom
- 10 전도의 달 | 컬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 13 2018 선교 오리엔테이션 | 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리오
- 14 전도의 달 특집 | 행복한 전도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神所喜悅的事
Blessed of God
- 16 2018 사순절 말씀요약
- 20 God's Will | Amazing Moment!
- 21 사순절 특집 1 |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 24 부활절에 대한 바른 이해
- 25 학습, 세례교육 | 성도의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는 첫 걸음
- 26 사순절 특집 2 | 사순절 섬김
천성가는 길은 새벽 5:30분에 출발합니다!
야광봉의 안내를 따라 함께 가는 천성길
영상과 자막, 음향과 조명을 하나로
세번째 사순절 통역
어려움 뒤에 얻은 놀라운 일
- 29 베드로, 마르다 선교회 헌신예배 | 우리는 누구인가?
어린 천사들의 천성가는 길
- 30 청년선교위원회 | 프누마 워십 (PNEUMA WORSHIP)
- 32 생명 현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 2.생명의 법칙
- 34 2018 대심방의 은혜
- 36 안수집사회(스테반) 죽 섬김 | 죽 쏜 하루, 기쁘지 아니한가
- 37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 38 십자말 성경퀴즈
- 39 2018 년 3월 새가족 안내

- 김성국 목사
- 편집부
- 편집부
- 편집부
- 송요한 목사, 김도현 목사
- 천위제 전도사 陈玉捷传道
- 조성순 집사
- 김유진 청년
- 홍미숙 집사
- 조승의 曹承义
- Joyce Jiang
- 석영지 집사, 손정호 집사
- 최원일 장로
- Zhou Wen, 심성문 집사, 박승희 집사,
- 이나 청년, 이길자 권사, 오단 집사
- 편집부
- 최성은 집사

- 김지현 집사
- 최성호 집사
- 편집부
- 남위홍 집사
- 차평화 전도사
- 조성순 집사
- 이송은 집사
- 남형욱 장로, 최재영 청년
- 이승조 집사
- 黃彬彬姊妹, 陈秀芹姊妹, 정혜경 권사
- 편집부
- 문인숙 권사
- 김기호 장로
- 편집부

러시아어권 예배부 - 전도집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전도집회

편집부

러시아어권 예배부는 3월 25일 주일 오후4시에 고등부실에서 중앙아시아의 전통 명절인 누루스 (한국의 설날과 같은 명절)을 맞아 회교도를 위한 전도 집회를 열었다.

2016년 3월 러시아어권 예배부가 창립되기 이전에 첫번째 전도집회를 열었고 작년 이어 올 해에 세번째를 맞는 집회이다. 첫번째 집회때는 러시아어권에 배의 창립과 부흥을 돕기 위해 한어, 영어예배부에서 함께 집회를 준비했었고 브루클린 등 타지역에 있는 러시아어권 교회들이 연합으로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올 해는 값없이 받은 구원, 복음에 감사한 마음과 전도에 대한 사명, 열정을 품은 러시아어권 회중들이 예배와 찬양, 식사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준비하였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등 여덟 나라의 이웃 교인들과 전도대상자, 장려자들이 초대되었다. 송요한 목사님께서 예배인도를 하시고 누가복음 19장 말씀으로 설교 하였고 예배 후에는 민속 명절을 맞아 식사를 나누며 찬양과 민속음악, 각 나라별 민속춤 경연대회로 큰 축제와 같은 집회가 되었다.

불과 2년의 시간에 부흥, 성장한 러시아어권 예배부가 이번 전도집회를 통해 더욱 더 견고히 서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전도집회를 통해 약 30여명이 영접기도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며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



표지사진 설명 : 러시아어권 예배부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교회와 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권장의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매일 새벽 일정한 시간에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 토요일에 새벽예배를 참석하며 교회 여러 부서에서 아침 베이글을 도네이션하는 소식을 듣고 한어권 성도들을 섬기고자 지난 3월 17일 베이글 도네이션을 하였다. 주일예배후 단체사진을 찍으며 주님안에서 한 가족임을 감사하며 사랑을 전하는 러시아어권 예배부 성도들의 얼굴에 가득한 환한 미소가 아름답다.

Русскоязычное служение– Евангелизация! Евангелизация– поделись с Божьим благословением

Редакция

25 марта в 16:00 Русскоязычное служение на третьем этаже, провела евангелизацию, посвященную празднику «Навруз». (праздник похожий на корейский Новый год)

В марте 2016 года Русскоязычное собрание провело эту евангелизацию в первый раз, в этом году это уже третья по счету евангелизация. В первый раз вместе с открытием церкви, русскоязычное проводило эту евангелизацию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церквями в основном из Бруклина. Но в этом году русскоязыное служение, в благодарность Господу за спасение и слыша призывы на то чтобы спасать людей,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проводили служение только сами. В программе служения были поклонение, хвалы, ужин и много других инетересных программ.

Казахстан, Узбекистан, Таджикистан, Киргизстан, Украина, Иран, Афганистан, Росс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этих восьми стран участвовали в этом служении,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в первый раз и те кто уже давно не приходил в церковь.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служителя из Ирана, но к сожалению не смогли приехать.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служения по традиции была интересная музык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с ужином. На которой были выступления каждой страны с танцами и песнями.

За два года русскоязычное служение с успехом развивается, и эта евангелизация послужила еще более укреплению служения. За эту евангелизацию примерно 30 человек, помолилось молитвой покаяния перед Богом. С Благословением Бога, Бог даровал прекрасные плоды евангелизации



На обложке: Многие из членов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служения проживают в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ах, поэтому не могут приезжать на утренние молитвы. Каждый из них на своих местах молятся вместе со всей церковью. Помня что многие верующие зи корейского собрания молиться, за них, 17 марта русскоязычная церковь пожертвовала финансы на круассаны.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скресного служения, члены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собрания, сделали фотографию с любовью в сердце и улыбкой на лицах.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



2018년 3월 11일 주일설교

출애굽기 23:1-33

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무 소중한 내 앞의 것들이니 놓치지 말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내 앞에 있을까요?

1. 주님의 인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의 사자를 보내어 우리를 길에서 보호하시고 마침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출 23:20)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천사일까요? 모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인간 지도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 23:21)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내시는 사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비한 천국에 넉넉히 이르게 하십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을 보십시오. 내 앞에 계신 분을 따르십시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얼마 있지 않아 뉴저지를 혼자 가야했습니다. 그 때는 지금같이 네비게이션이 없고 주소만 들고 찾아가야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 빙빙 도는데 전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길에 있는 사람에게 주소를 보여 주며 물었더니 그 분은 제게 말로만 설명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웃으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를 타고 와서 자기 차만 따라 오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차를 놓치면 안 되겠기에 눈을 크게 뜨고 지나친 표현이지만 죽어라 따라 갔습니다. 제가 가야할 목적지까지 인도해 준 그 분은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저는 때때로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죽어라 따르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죽어라 따릅니까? 돈을 죽어라 따르는 것 아닙니까? 명예를 죽어라 따르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죽어라 따르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 16:8-9)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내 앞에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삽니다.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고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게 산 것은 그 앞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내 앞에 있으면 나는 흔들립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안전도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 앞에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앞에는 주님이 계시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2. 승리의 위엄

내 앞에는 원수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승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들이 내 앞에서 등을 돌리고 도망하는 것일까요?

(출 23:27)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앞에 보내주신 위엄이 있으면 원수들은 등을 돌리고 도망갑니다. 지금 시대는 가벼움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무게가 없고 무서움이 없고 위엄이 없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시대에는 크고 은밀한 것을 구하였습니다.

(렘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지금의 시대는 자기가 알지 못하였던 크고 은밀한 것을 부르짖어 구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작은 것에 만족합니다. 마귀는 위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모르거나 활용 안하는 것 아닙니까? 마귀를 제압할 위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알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 전에 끝난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미국 대통령의 딸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의 딸인데도 한국 대통령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 딸로서 여유가 있었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앉아 있던 북한의 김영철은 불안한 눈빛을 가지고 앉아 있다가 그 자리가 불편한지 일찍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때 원수 마귀는 등을 돌리고 도망갑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막 16:17-18)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산 중에서 호랑이가 한번 울부짖으면 그동안 품 잡던 늑대나 여우는 쑥 들어갑니다. 늑대 같은 마귀, 여우같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 있게 부르짖으면 다 도망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큰 것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원수들이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계십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3. 조금씩의 변성

우리는 우리 앞에 변성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출 23:28-30)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헛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됴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일 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기업을 얻을 때까지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헛 족속을 조금씩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남아 있음으로 땅이 쉽게 황폐되지 않고 들짐승이 번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씩”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운영은 답답한 것 같아도 나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마 13:31-32)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작은 것이 점점 자라서 큰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한꺼번에 입니다. 주님의 시간은 조금씩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실수 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내 앞의 어려움은 나의 실책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그리고 마침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일 뿐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 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들었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인도, 승리의 위엄, 조금씩의 변성입니다.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승리하시고 누리시고 기대하시고 번성하시길 축원합니다.

<p>찬양국 기도회</p> <p>가슴 설레게 기다려지는 찬양</p> <p>편집부</p> <p>찬양과 연관된 모든 모임을 찬양국 안에 묶어 놓았다. 찬양대, 합창단, 연주팀, 무용팀... 몸과 마음과 악기와 이 외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영광돌리는 일에 함께하는 섬김이들이 기도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였고 나눔의 시간도 가졌다. “두근 두근 마음 설레는 기다림의 시간”이 김성국 목사님의 찬양을 향한 고백이었다. 풍성한 찬양에 감사를 표시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에 우리 모두는 찬양의 옷을 입고 성령이 충만하여 부르는 찬양의 모습을 간직하길” 당부하시는 말씀에 따라 찬양이 넘쳐나고 찬양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시간을 갖기를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었다.</p> <p>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에 늘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며 감사함으로 기도회를 마쳐가는 섬김이들의 모습엔 은혜가 충만하였다.</p> 
--

2018년 2월 24일 주일설교 (학개 2:1-9)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자는 하늘도 닿을 수 있고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지금 보다 더 나은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보다 더 찬란한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더 나은 희망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그 아름다운 희망의 미래를 이루어 가실까요?

1.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함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자기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자신이 바뀌지 않고는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와 일 (ora et labora): 기도와 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기도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분명히 이전 보다 다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2. 말씀과 성령이 계속하여 머무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나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보드(무거움, 풍부함)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광이 더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게감이 더 커진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풍성해 진다는 뜻입니다.

하시며 자비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때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36편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와 그 군대를 엎드러뜨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것이나 다 용납하는 것은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더러운 죄의 심판을 통해 그의 백성과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2. 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이 그 교회에서 더 무게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에 더 충만해지는 것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무게를 두고 성령 충만을 계속 사모해야합니다.

3.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진동시키시어 모든 나라의 보배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오는 다민족입니다. 다민족이 주님에게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민족 비전을 품게 하시고 다민족이 계속 돌아오게 하시고 계십니다. 다민족이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친구삼아야 합니다.

곧 약한 자들을 붙잡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기에 우리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 약한 자에게 나타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갑시다.

2. 영광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우리의 삶의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것을 보고, 내 기도대리가 아닌 다른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책 이름 평양 대부흥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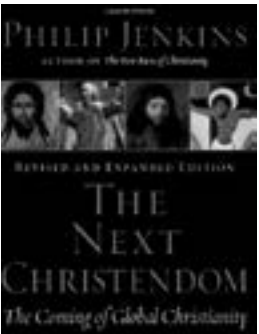
지은이
박용규



송요한 목사

책 이름 The Next Christendom

지은이
Philip Jenkins



김도현 목사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도에 제가 한국에 총신 신대원으로 입학할 때, 한국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중에 책을 읽고 리포트를 쓰는 것은 큰 숙제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에 읽고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는 강의와 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역사 신학에 박용규 교수의 강의와 책들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박용규 교수님은 교수로, 교회담임 목사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의를 아니라 부흥회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강의 시간에 은혜를 받으며, “평양대부흥운동”이라는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바로 한국 교회를 다루며, 기초가 되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다음에야 한국 교회를 잘 이해를 할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적인 대부흥의 운동과 관계를 보여주고, 무엇보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오직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은 역사안에 들어오신 역사의 주인공임을 알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우리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계 2:4-5절에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첫 사랑 회복을 위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해를 하려면 우리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뜨거운 첫 사랑을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평양대부흥운동” 이 책은 가장, 완벽하고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원산 부흥 운동으로 시작해서 백만인 구령운동 까지 우리에게 한국 교회의 그 첫 사랑을 보여주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책임입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 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책임입니다.

Philip Jenkins appropriately titles his book, The Next Christendom, as it discusses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 in the third millennium. Jenkins points out that we are currently in the midst of a dramatic transformation in the history of religion worldwide as the growth of the Christian church migrates from the “West” or global North to the Southern Hemisphere. Christianity is continuing to grow and expand i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and the majority of Christian believers throughout the world will reside in these places in the coming century. This trend will continue as many of the countries that are in these regions are those with the fastest growing population. These countries are either predominantly Christian or have a sizeable Christian minority.

It is interesting to read Jenkins’ comments regarding the Korean Christianity movement. Jenkins quotes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stating that Koreans-“believing as they do in the universal presence of spirits, it is not difficult for them to accept the doctrines of the spiritual nature of God.” I visited South Korea back in 2002 and the one thing that really stuck me was just the sheer number of Christian churches that I saw on the corner of practically every street. I was amazed at how a country that was so predominantly Buddhist could transform into a nation that is now so outwardly Christian. However, there is a quote by Harvey Cox in the book, that the Yoido Full Gospel church of Seoul “involves a massive importation of shamanic practice into a Christian ritual”. This should concern us as the church and lead us to evaluate and test our Christian practices if churches, especially in the Korean Pentecostal movement, have truly imported previous shamanic practices into their Christian beliefs.

Jenkins presents the case clearly that the Christian church is indeed migrating from the “West” or global North to the South in places like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With this movement taking place, it will be crucial for us to understand the impact that the cultures in these nations will undoubtedly have on Christianity. Ultimately, Jenkins presents a number of different futures which can very well take place given the current climate that we live in. The political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s and Muslims (i.e. theocracy and religious law, toleration and minority rights, conversion and apostasy) may ultimately prevent harmony and unity in this world but as Jenkins notes, Christianity has always demonstrated the ability “to transform weakness into strength”.

As such, we pray, as Jenkins concludes, “that the current makeup of Christianity throughout the world may suggest that it is most successful when its people are not consumed with this secular world but rather the things of God.” Let us pray that we would remain committed to God’s kingdom purposes and His great movement for the next Christendom as the Gospel continues to spread across the world. Let us pray for the upcoming summer mission season at KAPCQ as God sends our church out to the ends of the earth to share the love of Jesus Christ to the global world!

Soli Deo Gloria!

2018년 3월 18일 주일 설교 (출애굽기 24:1-18)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신앙도 지식의 신앙일 뿐 실제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들었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 듣고 본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 말씀을 들으라

듣는 것이 없이 하늘의 세계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첫 번째 필수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크게 지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반응하고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잘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所以,你们要去

– 천위제 전도사 陈玉捷传道 –

1. 들어가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 이것은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러 행해야 할 대사명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행 26:19)라고 말합니다. 그의 일생은 오직 복음을 위해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 2:20)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생명, 시간, 삶은 허공에 대고 주먹을 치지도 않았고, 시간과 땅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오직 한가지 일을 위해 준비하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2. 들어가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까?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은 후,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목표이 있습니까? 설마 잠시 있다 사라질 물질세계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허황한 꿈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치관은 과연 어떻게 다른걸까요? 주님을 믿기 전, 우리는 돈, 명예, 지위, 여러가지 향락을 추구했지만, 주님을 영접 한 후에도 여전히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만 더 많은 금전과 더 좋은 명예와 더 높은 지위,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의 풍부함을 위함이 아닌지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생관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3. 들어가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우리 모두 천국은 죄악으로 가득찬 이 세상보다 몇억만배 더 좋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 곳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흑암과 죄악, 고통과 사망의 위험으로 둘러 쌓인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왜 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타락한 세상에 살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직 끝나지도 완성하지 않은 뜻, 바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5-17)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뜻, 계획과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 계획과 꿈을 위해 추구하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또한 타락하고 짧고 영원의 의미가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나갈 물질세계를 위해 일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과 실제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2. 들어가며

“所以,你们要去使万民作我的门徒,奉父子圣灵的名,给他们施洗。”(太28:19)。这是主给教会,给每一位信徒的命令与使命,是我们一生要履行的大使命。保罗说,“我没有违背从天上来的异象:”(徒26:19)。他的一生是为了传福音,见证复活的基督而活的(加2:20)。保罗的人生是有清楚的目标的,因此他的生命、时间、生活没有向空气打拳,没有浪费光阴,更没有白占地土。有标杆的人生乃是一个有意义与价值的人生。耶稣基督的一生只为一件事情作预备,那就是十字架,因为这是父神对他一生的旨意。亲爱的弟兄姐妹,我们的人生有标杆吗?有清楚的目标吗?今日我们信靠主后,我们每日的生活目的是为了什么?难道只是为了在这个短暂的物质世界里吃吃喝喝,追求这个虚幻、即将会过去的世界吗?我们基督徒的人生观与非基督徒的人生观有什么不同呢?信主前,我们追求金钱、名利、地位,各样的享受。信主后,难道还是一样吗?难道信耶稣就是为了得到耶稣地上的祝福,使我们得着更多的钱财,更好的名利,更高的地位,更多的物质享受?这不是基督信仰,不是圣经所教导我们的人生观与信耶稣的目的。

计划与目的

我们都晓得天堂比这个充满罪恶与苦难的世界好的几亿万倍,如果天父拯救了我们我们要我们及时享受最好的福乐,祂可以马上提我们回天家,那里是最美的、最好的、最安全的。但是,主并没有这么做,祂是继续将我们留在这个黑暗、罪恶、痛苦与危机四伏的世界里。为什么?祂不是爱我们的吗?为何还让我们活在这个败坏的世界里呢?因为祂在这个世界里还有未完成的旨意,祂将我们留在这个败坏的世界里,有祂的目的与计划。(约一2:15-17)“不要爱世界和世界上的事;人若爱世界,爱父的心就不在他里面了。因为凡世界上的事--就像肉体的情欲,眼目的情欲,并今生的骄傲--都不是从父来的,乃是从世界来的。这世界和其上的情欲,都要过去,惟独遵行神旨意的,是永远常存。”这让我们看到我们今日在这世上活着,乃是为了祂的旨意、祂的计划和祂的目的而活的,不是为了满足、追求我们自己的目的、计划与梦想,不是为了追求这个败坏、短暂、没有永恒意义的世界而活着。主耶稣说,“不要为那必坏的食物劳力,要为那存到永生的食物劳力”(约6:27a)。也就是不要为了这个短暂会过去的物资世界而奔波一生,要追求那永恒的,有真实价值的。“不要忧虑,说:吃什么?喝什么?穿什么?这都是外邦人所求的,你们需用的一切东西,你们天父是知道的。你们要先求祂的国和祂的义,这些东西都要加给你们了。”(太6:31-33)。神的国和神的义乃是今日我们生活的目的与方向,没有活在神的旨意里,不是追求神的国和神的义的基督徒都是走在迷失的方向里,生命、人生乃是虚空的,没有永恒价值与意义的,乃是向空气打拳,浪费光阴,白占地土的。主耶稣说,“我的食物就是遵行差我来者的旨意,作成祂的工。”(约4:34)。主耶稣在地上每日的食物就是遵行神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1-33)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오늘 우리가 살아 갈 목적과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방향을 잃고 생명, 인생 또한 허무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삽니다. 허공에 대고 주먹을 날리는 삶, 시간과 땅을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34)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일용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의 인생관을 깨닫고 바꾸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마감하시기 전,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요 17:18)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목적은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남기신 뜻도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죄악 많은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한가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b)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전 2:4)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원하시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오늘 나와 당신이 이 땅에 사는 목적과 뜻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이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4. 들어가며

우리의 사명과 책임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전 4:2a)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고전 9:16-17) 설령 책임과 부탁이라 할 지라도 훗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위해, 썩어져 없어질 세상을 위해 산다면, 장래에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마 25:26b) 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주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 15:58) 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5. 들어가며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일과 그분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첫번 째 방법은 복음 전하기 비교적 쉽습니다. 길가에서 전단지를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교회로 요청하고

旨意, 每天作神的工。弟兄姐妹, 甚愿我们能够知道并调整我们的人生观, 我们如今活着, 不再是为自己而活, 为追求这个世界而活, 乃是为这位为我们死而复活的耶稣基督而活, 为神的旨意而活。

6. 들어가며

神的旨意

那神的旨意是什么呢? 神的国与神的义又是指什么呢? 主耶稣离世之前向父祷告说, “你怎样差我到世上, 我也照样差他们到世上。”(约17:18)。原来我们在世的目的与主耶稣在世的目的乃是一样的, 父神差遣主来到这个世界的旨意, 与主耶稣差遣我们留在这个世界的旨意是一样的。那这是什么旨意呢? 圣父差遣圣子来到这个罪恶的世界, 只为一件事情, 那就是拯救罪人。“神爱世人, 甚至将祂的独生子赐给他们, 叫一切信祂的, 不至灭亡, 反得永生。”(约3:16)。神“不愿有一人沉沦, 乃愿人人悔改。”(彼后3:9b), “祂愿意万人得救, 明白真道。”(提前2:4)。神对你我的在世的旨意与主耶稣基督一样, 就是要传福音, 拯救罪人。这是神今天留我在这个世界上 的目的与旨意。“天国近了, 你们应当悔改!”(太4:17), 这应当是我们每日生活的信息。

7. 들어가며

我们的使命, 责任

传福音乃是我们在世每日的使命与责任, 保罗说: “务要传道, 无论得时不得时”(提后4:2a), “我传福音原没有可夸的, 因为我是不得已的; 若不传福音, 我便有祸了。我若甘心作这事, 就有奖赏; 若不甘心, 责任却已经托付我了。”(林前9:16-17)。既是责任与托付, 将来你我都要向神交这福音的账。若我们今生只为自己而活, 为这必朽坏的世界而活, 我们将来必无法向主交账, 必羞羞愧愧地站在主的面前, 被主宣判为, “你这又恶又懒的仆人”(太25:26b)。反之, 如果我们乃是为了神的旨意而活, 为了神的国度而活, 为了福音而活, 将来我们必定被主称赞为, “你这又良善又忠心的仆人”(太25:21,23)。“所以我亲爱的弟兄们, 你们务要坚固, 不可摇动, 常常竭力多作主工, 因为知道你们的劳苦, 在主里面不是徒然的。”(林前15:58)。在今生的每日生活里作成神的工, 成全祂的旨意, 传扬福音, 见证基督, 有两个方法: 第一, 用话语传; 第二, 用生命传。第一个传福音的方法比较简单, 去街上派发单张, 邀请人回来教会参加聚会, 与人分享福音信息(EE)等等, 用言语来传。第二个比较困难, 具有极高的挑战性, 这也是圣经一直教导我们的, 就是要活出这个福音, 在每日的生活里, 工作岗位上, 家庭中, 人际关系里活出基督的样式, 活出仁爱、喜乐、和平、忍耐、恩慈、良善、信实、温柔和节制的生命品格。让家人、亲戚、朋友、同事等在你的身上看见你所传的耶稣基督, 看见你所见证的救主。主耶稣说, “若有人要跟从我, 就当舍己, 天天背起他的十字架来跟从我。”(路9:23)。耶稣基督因着爱我们的缘故, 背起祂的十字架, 为我们舍己。同样的, 跟从主的你和我, 天天都要效法祂的样式, 就是因着爱人的缘故, 天天愿意牺牲自己, 放下自己, 使别人得着这福音的好处。保罗说, “凡我所行的, 都是为福音的缘故, 为要与人同得这福音的好处。”(林前9:23)。

8. 들어가며

亲爱的弟兄姐妹, 让我们今日跟随主的脚踪, 遵行神的旨意, 传扬这个福音, 高举十字架, 活出基督的样式, 使人因我们而认识救主耶稣基督, 蒙恩得救。“大卫在世的时候, 遵行了神的旨意, 就睡了。’或作‘大卫按神的旨意服事了他那一世的人, 就睡了。’, 归到他祖宗那里”(徒13:36a)。甚愿你我也像大卫一样, 按着神的旨意服事了这一世代的人, 就睡了, 归到我主耶稣基督那里。在祂那里有为我们所预备的荣耀的冠冕。哈利路亚!

교제 (전도폭발) 등을 통해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비교적 어렵습니다. 도전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 직장과 가정, 그리고 인간 관계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가족들과 친척, 친구 그리고 동료들에게 당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당신이 증거하는 구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눅 9:23)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므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당신과 저도 그분을 닮아가고 사랑하므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

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전 9:23) 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를 통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행 13:36a) 당신과 나도 다윗과 같이,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 전도법 소개 |
순간을 놓칠 수 없는 복음제시

우리교회는 전도폭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도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한어, 영어, 중국어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매해 봄과 가을학기로 2차례 있으며 훈련자, 준훈련자, 훈련생들의 활발한 전도활동으로도 전도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급하게 전도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5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간단한 전도법을 소개합니다.



호두 23립 복음 전도지



-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였습니다.
-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 되었습니다.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고, 죄의 값은 사망이며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지만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부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시며 주인이십니다.
-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주인으로 모셔들이면 당신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회개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 하십니다.

백지 전도법 (약식 브릿지 전도법)



- 먼저 종이를 가로로 반을 접습니다. 반으로 접은 종이를 바닥은 놔두고 위 종이만 또 반으로 접습니다. 옆으로 선을 긋고 아래로 두줄을 긋습니다.
-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 사람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 그때부터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 불행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 인간들은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죽음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 심판에는 형벌이 따르는데 그 형벌은 바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예수님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불행대신 행복을 죽음대신 영원한 생명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심판이 아니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형벌대신에 축복으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오른쪽과 왼쪽 중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른쪽이요? 그렇다면 제가 영접기도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리오

- 조성순 집사 -

지난해 150여명의 성도님들이 중단기로 섬겼던 선교 기록물들이 영상으로 소개되면서 2018년 열방을 향한 선교 오리엔테이션이 주일 저녁 7시에 양순관에서 시작되었다. 이어 송요한 목사의 사도행전 8장 14 - 25절의 본문을 주제로한 말씀이 이어졌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필요한 것은 암기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지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뿐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 복음을 심고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사역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되어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1993년 시카고의 한인 베델교회에서 송요한목사의 고향 우즈베키스탄에 복음을 들고 방문하였다고 한다. 60여명의 젊은이들을 모아 놓고 복음을 전한 결과는 25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아 들였을 뿐 아니라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 6명의 목사, 4명의 선교사, 4명의 사모가 배출되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시카고 한인 베델교회에서 전해 듣는다면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어 주셨는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 할 것이 분명하다.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결과물이 아닌 돌보시고 키우셔서 열매를 맺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쉬임 없는 행진을 해야함을 알게하는 메시지였다.

이어 출국 예정일 이후 최소 6개월의 유효 기간이 있는 여권이 준비되어야 할 것과 함께 동역할 팀원들이 속히 결정되어야 저렴하고 유용한 시간대의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다는 진행자의 안내가 있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팀원들이 결정됨과 동시에 4월부터 7월까지 여러가지 훈련이 있을 것이며 6월부터 8월에 걸쳐 행하여질 선교 일정엔 단기 중기 실버 사역으로 엘살바도르가 새롭게 포함되어 카작스탄, 온두라스, 중국, 캄보디아, 케냐, 아리조나, 할렐까지 모두 8 군데의 사역지를 놓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게 된다. 합심 기도로 120여명이 모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전에 전한 해외 선교위원회 위원장 정길표 장로가 최근 최득신 선교사의 근황을 소개하였다. 알제리에서 10년간 복음을 전하다 추방되어 잠시 사역을 재정비한 후 프랑스 남부 도시 마르세이유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뜻을 듣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였다. 프랑스는 근래 많은 테러와 불안한 치안으로 여러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 특별히 100% 이슬람 문화권의 지역에서 상거래중인 알제리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뜻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현실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아랑곳 없이 목숨을 내어 놓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최선교사의 전해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뜻을 든 사진을 받고 엄청난 영적 도전을 받았다고 전하였다.

우리가 나가 전하듯 심지어 이단들도 열심히 포교에 앞장서 에디오피아의 경우 이단의 세력이 교육국을 점령하여 차세대들을 교육하는데 저들의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는 과정에 다다르고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사정이 조금 나아지는 듯 싶었으나 여전히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며 우리의 반쪽 북한은 더할 나위 없이 열악한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을 맞이하고 목숨을 잃어야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전하는 자 없이 복음은 전해질 수 없다. 올해 선교 오리엔테이션은 우리 모두를 향한 부름의 시작이었다. 교회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좋은 소식은 복음이라는 모습으로 열방을 향하여 갈 것이다. 우리가 외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기에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우리의 지체는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 나이와 성별을 넘어 우리의 지상 사역은 올해도 분명히 잘 감당되어 각자의 맡은 소명에 따라 잘 수행되어질 것이 분명하다. 권장 식구들이여! 각자 처한 곳에서 다민족을 향한 우리의 염원을 교회의 사명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 사역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김유진 청년

순종해야 하는데, 머리로는 잘 알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야 하는데 정말 나가고 싶지 않을 그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아시나요?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하고 은혜로왔던 전폭 훈련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홍정택교사님께서 갑자기 토요일에 시간이 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유진, 유진훈련자가 꼭 필요해. 정말 좋은 시간이 될거야!” 자마이카 지역의 몇몇 교회들이 모여 전도폭발 훈련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들을 가르쳐줄 훈련자가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잠시 영어 전폭훈련을 도왔던적은 있으나 아무래도 훈련자로 처음 보는 사람들을 이끌기엔 부담스러운 마음에, 가고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까올수록 ‘얼마나 필요하면 나에게까지 요청이 왔을까’ 하는 마음에 부담감 반! 책임감 반!으로 임한 그날의 훈련은 저의 삶에 분명한 사명을 제시해주는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마이카교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훈련자들) 그 자리에서 무작위로 짜여진 팀을 이끌고 전도대상자를 만나러 나가야 했습니다. 2시간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동안 전도를 하면서 가르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데, 나의 훈련생이 대상자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쩔수 없이 노방전도를 나갈 결심을 하고 긴장을 풀기위해 훈련생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 분이 소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

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와우! 멋진 일을 하시네요. 저는 4년전 실습학생때 만난 한 환자를 통해 소년원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들려주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간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요.” 라는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훈련생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폭팀이 가서 아이들을 만나도 괜찮은지 매니저에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은것이죠! 긴 시간 마음의 소원으로만 갖고 있던 꿈이 생각치도 못했던 시간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날에 저는,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두명의 청소년들에게 복음 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떠나있던 친구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권면을, 예수님을 몰랐던 친구에게는 구세주와 주인이 되시는 종으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날의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직장에서 먼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없어 회의감을 느끼고 있던 훈련생은 언제든지 아이들이 원하면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복음전파의 문이 또 열리게 된것이지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벌써 그 후로 일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날을 생각하면 마음속에서부터 힘이 솟고, 구원을 위해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이 납니다. 당장 우리 눈 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전도하는 것을 미루거나 망설이게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종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복음전파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금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같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위암 3기인 40대 후반 여성에게 일어난 특별한 전도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미국에 건너온 이후 10년 넘게 단 한번도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그녀를 알게된 후 서로를 걱정하며 얘기를 나누다가 점차 내가 만난 주님을 반복하여 말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건성으로 듣던 그녀가 어느날 부터인가 조금씩 복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항암 치료가 너무 아프다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계기로 저는 새벽기도를 함께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녀의 집 앞에 차를 대기하며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빠지던 처음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착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날 새벽예배후 기도 중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기쁜 얼굴로 주님을 만났다고 행복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신의 기도가 아닌 여동생이 주님을 만날수 있게 해달라고 울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와 그녀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암에서도 완쾌 되었으며, 서로 믿음의 동반자로 주님을 사랑하며 함께 교제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말합니다. “ 언니 주님을 만나게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이 말을 듣는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전도하는 행복을 느낍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릴수 있기에 저는 기꺼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神所喜悦的事

曹承义

感谢教会给我这机会，做一些街头福音发单张的感想。从小时候父母亲便带我们到香港九龙城灵粮堂敬拜上帝。记得在讲台上有一幅很大的世界地图在底部写着可：16：15你们往普天下传福音给万民听。这是耶稣基督给门徒的大使命，也是给我们这末世信徒的一个使命。在过往的日子中也有传福音的机会，每当有机会也跟一些朋友分享耶稣基督的福音。使徒保罗在罗马书一章说这福音本是上帝的大能要救一切相信的人，先是犹太人，后是希利尼人，因为上帝的义正在这福音上鲜明出来，这义是本于信，以至于信。如经上所记，义人以因信得生。

记得从前每个周末自己也会拿着圣经到公园给人分享福音。因我知道当别人信主时便是我们的大喜乐。还有一次当团契结束后我独自走路回来，看见有一老婆婆在推着一架木头车上斜坡。我便跑去帮他一起推。并跟她分享主耶稣的福音，当她离开后，我继续回家的路上，抬头看到天上的月亮，让我想起主耶稣说，我知道天父与我同在，因我常作他喜悦的事。在街头分发但张也有时感到一些人的冷眼和拒绝，还有一次一个女人对我说“神经病”但愿这罪不归于他们，因他们自己不知道所作的。但我深信这是一个蒙恩的事奉，但愿我们都能多体会主耶稣爱人灵魂的心肠，愿荣耀归于他。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Blessed of God

Joyce Jiang

By God’s grace, I can attend the 56th Evangelism Explosion training. I know that our God loves all lost souls. He wants us to reach out to people who are in need of the gospel. Before I took the EE training class, I was struggling with sharing the gospel with people.

However, God is so good. When I had that thought in my heart, God gave me an opportunity to hear a sister’s EE testimony and how God changed her heart and used her to share the gospel through the EE training and even later in her daily life.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That testimony touched my heart and stayed in my heart. God’s timing was perfect. Later, I met Nicole. She introduced me to the 55th EE training class. The whole training was full of blessings. I experienced how God powerfully used each instructor, trainer, trainee, and prayer partner. I truly experienced God’s presence in OJTs (On-the-Job Training). Without Him, we could do nothing because anything could happen during the meetings.

Each OJT was very special and unforgettable. I still remembered one time we had an evangelism guest who was a junior high school student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조송의 형제

저에게 노방전도를 하면서 느낀 것을 나눌수있는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홍콩 구룡성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때,강대상 뒤에 걸려있던 큰 세계지도 밑에 씌여있던 마가복음 16: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이고,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믿는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만 있으면 저는 주위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됴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서 명확하게 나타났고, 이 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혼자서 성경을 들고 공원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사람이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가 우리에게 제일 기쁜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은 모임이 끝나서 혼자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분이 나무밀차를 밀고 오르막을 올라 가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도와드리면서 예수님께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와 헤어진후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문득 하늘의 달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보내신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노방전도를 하다보면 가끔 사람들의 눈총과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은 어떤 여인이 저한테 ‘미친놈’ 이라고 한적도 있지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한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복 받는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한사람 한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who didn’t come to church for a long time. We spent the longest time praying earnestly for him and asked God to prepare his heart and be ready for the gospel. In order to meet him, we changed the appointment date three times. Because of that, it became our first time to meet an evangelism guest without the trainer by our side.

During the whole meeting, we faced a lot of challenges. We moved from one place to another place three times. His phone rang several times during the meeting which made the conversation even more difficult. We didn’t have the opportunity to share the gospel in detail with him. From what I experienced that day, it seemed like nothing worked out the way we expected it to. However, by God’s grace, he finally accepted Jesus as his personal Savior.

When I look back at what I experienced, I’m so thankful for God remind-er to me that He is the One in control of everything. It is not because of how well we present the gospel. He has a purpose for each little thing that happens to us even though we don’t understand it at that time. I’m so blessed to be a part of an EE team. It not only draws me closer to Him, but also strengthens my faith by 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Brothers and sisters, if you have a willing heart to share the gospel, you can pray to God and let Him lead you. Don’t put out the Spirit’s fire. Let God fill your heart with His love and love others by sharing the gospel.

[21세기의 천로역정]
2018년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요약 정리 : 석영지 집사, 손정호 집사

I. 장망성에서 좁은 문까지



2월 19일 (월) 장망성의 무거운 짐을 진 자 (사 19:17-18, 시 38:4)

1. 도시여 회개하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은 심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성읍은 멸망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느웨 처럼 회개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뉴욕은 복음을 듣고 회개한 성읍일까요? 뉴욕은 정치, 경제, 예술의 도시가 아니라 “회개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디지털 세대가 아니라 회개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2. 아담아 회개하라 우리 인생이 한 때는 아름다웠으나 이제는 골치 아픈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온 세상을 직악으로 물들이고 그 마음에는 악한 것만 생각하므로 그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의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천성 가는 길의 첫 자세입니다.

죄를 숨기면 안 됩니다. 죄를 다른 자에게 떼어 넘기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자신이 회개해야 합니다.

2월 20일 (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마 3:1-12)



— 멸망의 도시를 떠나 어디를 갈지 몰라하는 순례자에게 복음 전도자가 약속의 열쇠를 전한다.

1. 그 때에, 이 때에 여기서 ‘이 때에’ 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그 때에’ 에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여, 신부들이여! 기름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천국은 가까웠고 진노는 임박했는데 천국 맛을 준비, 진노 피할 준비는 다 되

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이 ‘지금’ 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때’ 라고 즉시 반응하시길 축원합니다.
2. 불이나, 불이나 우리는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임박한 진노의 내용은 지옥의 불입니다. 이 불을 피하는 길은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셨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은 이 사순절을 통해 더 활활 타오르시고 아직 못 받은 분들은 이번 사순절에 기도하면서 그 불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월 21일 (수) 두 이웃 (마 13:18-21)



1. 완고한 자 완고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완고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 같이 박자 맞추면 안 됩니다. 아버가일과 같이 행동을 더욱 민첩하게, 태도를 더욱 겸손하게, 언어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2. 연약한 자 연약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천국 말씀을 듣고 잠시 따르는 듯하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원에 있는 맹수의 눈에는 번뜩이는 빛이 없습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 소중한 것’ 을 위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을 과감히 끊는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고민은 불행의 지표이지만 결단은 행복의 지표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2월 22일 (목) 낙심의 수렁 (시 42:6-11)



1. 어떻게 낙심의 수렁에 빠지는가? 사람이 낙심에 빠지는 이유는 내 안에 있고, 밖에서부터 오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면 낙심이 옵니다. 또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공격하고 비방하면 낙심이 됩니다. 내게서 오는 낙심, 밖에서 오는 낙심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빨리 잘 되는 길이 어떤 길이지를 찾지 마시고 끝까지 바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2. 어떻게 낙심의 수렁에서 나오는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었을 때에 환경을 보고 탄식하지 않고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건

져 주었습니다. (시 42:6-8, 11b) 천로역정에 보면 낙심의 수렁이 있습니다. 정도를 걷지 않고 방심하면 그렇습니다. 수렁에 빠지지 마시다. 빠지면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 갑시다. Finishing well 인생이 됩시다.

2월 23일 (금) 세상 지혜자 (요 8:44-47)



세상 지혜자는 만나면 똑똑함을 알겠는데 그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세상 지혜자의 두 가지 특징이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인 세상 지혜자는 마귀에게서 났고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천성이라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이리 저리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천성의 순례자가 아니라 이 땅의 거주자가 되게 됩니다. 세상 지혜자는 살인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순례자를 죽여 이 땅에 머물게 합니다. 마귀는 세상 지혜자 같은 자를 통해 순례자들을 천성 가는 길과 기도를 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니 정신 바짝 차립시다.

2. 거짓 세상 지혜자는 천국 순례자들을 영적으로 아예 죽이거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있다고 거짓을 말하여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이런 율법적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네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받는다.” 진리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진리입니다.

2월 24일 (토) 좁은 문 앞에서 (마 7:13-14)



우리들 앞에 놓인 두개의 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요,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입니다.

1. 찾으라 좁은 문은 찾아야 합니다.(마7:14) ‘찾는 자’ 라는 단어는 ‘휴리스콘테스’ 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열심히 간절히 찾는 자’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양의 문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좁은 문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랴 말씀하십니까?

2. 들어가라 예수님은 좁은 문을 찾을 뿐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힘써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을 통과한 자들은 순수합니다. 다시 뒤돌아 가지 않습니다. 그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II. 좁은 문에서 십자가까지



2월 26일 (월) 좁은 길, 옛적 길 (렘 6:16-21)

순례자가 걷는 좁은 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좁은 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옛적 길, 선한 길입니다.

1. 좁은 길, 옛적 길을 걸으면 평강을 얻는다 우리는 다시금 멈추어 서서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는 지혜가 무디어졌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없이 이르게 될 것이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좁은 길, 옛적 길, 주님 가신 그 길,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길을 선택하여 걸으면 평강이 임합니다.

2. 좁은 길, 옛적 길을 걷지 않으면 장애물이 놓인다 옛적 길이 아닌 유행 따라 걸으면 하나님이 그 앞에 장애물을 두신다고 합니다. 요나에게 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반대 길로 갔습니다.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계속 내려가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도망가는 길에 풍랑이라는 장애물을 두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인생은 평강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놓으신 장애물 경기 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2월 27일 (화) 일곱 개의 방 (행 20:22-24, 엠 5:26)



천성에 가는 순례자는 해석씨의 집에서 7개의 방에 대한 그 해석을 듣습니다. 그 방 마다 주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면

1.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자 한 번 뿐인 삶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바울은 한 번뿐인 자기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는 가치 있는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삼으십시오.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즐겁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살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 내 삶에 모든 먼지를 씻어내자 바닥은 사람의 마음이요, 먼지는 사람의 죄요, 빗자루로 먼지를 쓰는 것은 율법으로 죄를 씻으려는 것이나 결코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복음으로 죄는 씻어집니다. 삶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 먼지가 있습니다. 일부를 숨기지 말고 다 씻어내야 합니다. 빗자루로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 이어야 합니다.

2월 28일 (수) 일곱 개의 방 (창 25:27-34, 아 8:6-7)



— 마귀가 영혼의 불을 끄려고 계속 물을 붓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불이 끄지지 않도록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계신다.

1. 진짜 사냥꾼 전문 사냥꾼은 목표물을 잡기 위한 빠른 판단력과 강한 체력이 필요 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나 팔죽 한 그릇이라는 어이없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야곱은 죽을 쓰고 있는 사람 같았으나 “장자의 명분”이라는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진짜 사냥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가 목표물을 밝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영원한 목표를 보는 진정한 사냥꾼이 되어야 합니다.

2. 많은 물도 끼지 못하리 마귀가 우리 영혼에 불을 끄려고 물을 계속 붓고 있지만 주님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낙심이 찾아오고 성령의 불이 꺼지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야 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불을 사순절에 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3월 1일 (목) 일곱 개의 방 (딤후 6:11-19, 눅 16:19-26, 살전 4:16-18)

1. 고수 (高手) 칼잡이가 되라 신앙 생활은 끝까지 싸움입니다. 천성 가는 길, 마지막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은 말씀의 예리한 칼입니다. 말씀이 예리하지 않은 성도는 번번이 세상에 집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공격할 때 “기록되었으되”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칼은 말씀의 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의 칼이 예리해야 이깁니다.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여 승리합니다

2. 삶은 포장지가 아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입니다. 부자는 겉모습이 너무 화려합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이 많았습니다. 거지는 비록 겉은 힘든 모습이었으나 천사들이 받들어 갈 정도였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은 그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그 진실한 내용입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3. 몇 시 입니까? 물어보면 다 시계를 봅니다. 영적인 시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 다가 옵니다. 여기서 공동체로 살고 그날에 주님과 함께 있어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이 몇 시인지 알고 있습니까?

3월 2일(금)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사 53:1-6)



—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순례자의 등 뒤 짐이 풀어진단다.


순례자의 죄의 짐이 십자가 앞에서 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중한 죄 짐을 벗고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 모든 것을 다르게 본다 십자가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진짜를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은 아름답지도 귀

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이 벗어지고 보니 예수님도 세상도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2.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을 갖는다** 죄의 짐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허물과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 ‘평화를 누리다’, ‘나음을 받았다’ 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문제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3월3일 (토) 본향을 향하라 (히 11:13-22)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1. **사모하라**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는 진정한 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좋습니까?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성, 본향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땅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2. **축복하라** 축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지 돈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복을 나누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교회도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III.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집까지

3월5일 (월) 세 광명의 천사들 (막 2:5, 눅 3:4, 엠 1:13)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인 죄사함, 새로움, 인침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죄 사함을 받다**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진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으신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아직 이 은총을 못 받은 자는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죄인이다.” 회개함을 통해 사죄의 은총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2. **아름다운 새 옷을 입다** 새 옷을 입거나 새 신을 신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조심합니다. 말도 우아해 집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면 이제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더러운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하나도 낼 수 없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고 모든 것마다 깨끗한 것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3. **인침을 받다** 죄사함 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이 인을 받은 자는 끝까지 보호받습니다. 이 인을 받은 자는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사함 받은 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 성령의 인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확실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3월6일 (화) 세 잠든 남자들 (롬 13:11-14)




1. **위험이 없다**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큰 홍수 앞에 말씀이 있었어도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깨어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려라, 죄를 고백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겸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2. **좀 더 자자** 어떤 발에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가득 차 있고 담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인이 좀 더 자고, 누워 있고 제 때에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일에 가시덤불이 퍼지게 됩니다. 게으름이 습관이 되고 나태함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습관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3. **내 길 간다** You go, I go! 각기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며 자기 길을 가면 후회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자기 길로 가면 이를 갈고 가슴 치며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이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후회 없는 길입니다.

3월7일 (수) 담을 뛰어 넘어 오는 두 사람 (요 10:1-6)




1. **다른 데로 넘어 가는 자** 좁은 문을 통과하여 신앙생활을 출발하지 않은 자들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교만하고, 항상 쉬운 길을 택하다 보니 진정한 헌신이 없습니다. 절도와 강도 같아서 공동체를 허물고 해칩

니다. 또한, 담을 넘은 사람들의 특징은 출발이 야 어떻든 과정이야 어떻든 결론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문으로 들어가는 자**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와 그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그리고 앞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물을 아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의 사정을 아십니다. 보듬으시고 위로하시고 살려 주십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3월8일 (목) 다시 일어나 (왕상 19:1-8)





— 교만과 쉬운 길을 가는 세상이지만 순례자는 고난의 길을 간다.

1. **로렘나무** 엘리야는 아합왕을 피해 북 이스라엘 땅에서 남 유다 브엘세바까지, 하루 길을 더 도망가 로렘나무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엘리야는 계속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상상으로 두려워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가는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내가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다릅니다.

2. **떡과 물** 엘리야는 로렘나무 아래 쓰러져 잡니다. 천사가 찾아와 그를 어루만져 주고 붙들어 일으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가 일어나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가야 할 길을 일러줍니다. 엘리야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포기하고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때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일어나 천성 길로 걸어 가는 겁니다.

3월9일 (금) 무서운 사자들, 그러나 (벤전 5:6-11)




1. **주님 손에 맡기라** 우리 인생은 말길 때가 스스로 처리할 때 보다 천배, 만배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염려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됩니다. 그 손으로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때때로 그 손으로 나를 숨겨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갈고 닦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2. **마귀를 대적하라** 주님께 맡기는 삶과 더불어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마귀는 더 이상 덤비지 못합니다. 약속과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마귀는 대적하는 자를 무서워하고 대적하면 도망갑니다.

3월10일 (토) 아름다운 집 (마 16:13-20)




— 순례자는 바른 길을 걸어 삼키려는 사자들을 피해 아름다운 집에 도착한다.

1. **음부 권세를 이기는 승리** 마귀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아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옥으로 끌고 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교회에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 곧 교회에서 입게 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 순례자가 수치의연덕, 사망의 골짜기로 떠나기 전에 믿음의 방패, 지혜의 투구, 기도의 검을 받는다.

2.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 교회는 자신이 만든 성공 열쇠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자신도 이 복음을 믿어 천국 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세상이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신도 세상도 천국에 가지 못 합니다.

IV. 아름다운 집에서 헛된 도시까지

3월12일 (월) 아블루온과의 싸움 (계 9:1-11)





— 마귀의 왕이 순례자를 쓰러 쓰러려 하지만 말씀의 검에 죽는다.

무시무시한 모습의 황충, 무저갱에서 올라와 사람을 괴롭힌다.

1. **그날을 준비하라** 괴로움이 있어도 죽지 못하는 때, 사는 것 보다 죽는 것이 나은 괴로움과 아픔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괴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날을 준비하는 참된 교회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 올바른 성례의 집행, 정당한 권징의 실행이 살아 있는 교회입니다.

2. **그날에 싸우라** 그날에 황충이 우리에게 드는 대적의 무기는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벤전4:7), 말씀의 검을 잡아야 하고 진리의 빛을 놓치면 안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로 자녀 된 권세와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3월13일 (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1-6)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1.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나의 인생길에 길고 짧은 사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은 앞 선 자들의 음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시 23:4a)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작도 끝도 주께서 하시고 그 과정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2.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심** 인생을 양에 비유하십니다. 양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고집만 써서 자기 맘대로 하고 아무데로나 가고 합니다. 또 잘 넘어지고 어딘가에 빠지고 외부의 공격에서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양은 상처가 있어도 털이 수복하여 그 상처가 잘 안 보입니다.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위한 도구입니다. 양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 인생에 흐리고 캄캄한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날, 주님은 나를 찾고 찾으시사 지팡이과 막대기로 나를 건져 주십니다.

3월14일 (수)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 4:1-5)




천성 가는 길에 같이 가는 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준으로 돌아가자** 판단의 기준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여 다툼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판단자입니다. 주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잠잠히 들으셔야 합니다.

2. **사명으로 돌아가자**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투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되고 쓸데없는 다툼으로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교회가 사명으로 돌아가야 다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복음의 외침이 교회의 아름다운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사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멍뭉뭉 예배시간 다가온다고 초종을 쳤듯이 외쳐야 합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외쳐야 합니다.

3월15 (목) 신실의 놀라운 이야기들 (렘 29:18-19)



신실함이 들려 준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이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말씀을 버리면 세상의 조롱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세상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 다니고 학대당하고 수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버린 자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말씀을 버린 삼손은 이방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려야 했습니다. 말씀을 버린 사울왕은 자기가 진멸하지 않은 아말렉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따라 처리하지 않는 것들이 마침내 나를 죽입니다. 잘난 척하고 말씀을 버리고 가면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2. **말씀을 지키면 세상의 유혹은 떠난다** 세상으로 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요일2:16-17)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흔듭니다.

3월16일(금) 헛된 도시의 유혹 (전 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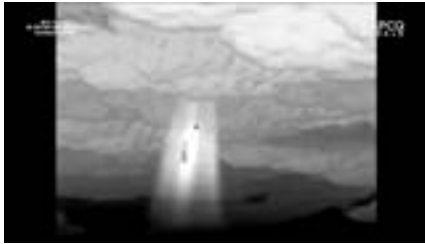


1. **‘크게’와 ‘많이’의 삶은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특별히 소유하는 삶이 헛되다고 합니다. 더 크게 되려하고 더 많이 얻으려는 삶은 바람을 잡는 것같이 헛된 삶입니다. 소유가 커지고 많아지면 영혼에 평안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영혼의 평안은 ‘크게’와 ‘많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물질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영의 도시에서는 네가 가질수록 더 중요하고 더 멋질 것이라고 유혹하지만 ‘크리스천’과 ‘신실함’처럼 소유지향적인 헛된 삶을 버립니다.

2. **무엇이 유익한가?** 헛된 삶이 아닌 유익한 삶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 무엇이 유익한지 알아야 합니다.이익과 유익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익은 자기에게만 좋은 것이고 유익은 모두에게 좋은 것 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람을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유익한 사람입니까?

3월17일 (토) 헛된 도시의 핏박 (계 2:8-11)



— 순례자와 믿음은 허영의 장터에 참여하지 않아 감옥에 갇히고 믿음은 순교하지만 순례자는 주님 앞으로 가는 믿음의 승리를 본다.

예수님의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예수님. 죽으셨다가 지금은 살아 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 두 모습은 서머나 교회에 가르치시려는 두 교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 **현실을 넘어 실상을 보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모든 사람이 보는 환난과 궁핍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서머나 교회의 실상, 진짜 모습은 ‘부요한

자’ 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현실과 정반대의 부요한 실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모습인 실상이 있습니다. 욕의 가정에 찾아온 현실은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욕은 현실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알기에 엎드리어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진짜 실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 **가까운 미래를 넘어 먼 미래를 보라**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가 있고 영원한 종말의 미래가 있습니다. 짧은 미래에 있을 성공이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영원한 종말을 천국에서 보내고 상급을 받는 삶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헬라이어의 충성과 믿음은 같은 단어입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영원히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넘어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갓즈윌 (God's Will) 청장년부 선교회 수련회

Amazing Moment!

최원일 장로

우리 교회 30대 남녀 성도들로 구성된 갓즈윌 (God's Will) 청장년부 선교회 수련회가 오늘 4월 6일 금요일부터 1박 2일간 열립니다.

뉴저지 롱벨리 산속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리벤젤 수양관에서 사월의 신록 가운데 펼쳐지는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Amazing Moment! 김성국 담임목사님께서 직접 강사로 참여하셔서 올해 첫발을 댄 갓즈윌 선교회원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뜻 깊고 정겨운 시간이 될 것이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요한복음 2:8).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바로 다음 절인 9절에 소개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이다. 9절에서 설명하는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직전인 8절의 상황을 '위대한 순간'이라는 주제 말씀으로 삼은 것이 많은 회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며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1박2일은 30대를 지나고 있는 회원들 각각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무엇이었는지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인생을 연결시키고, 말씀 안에서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은혜의 장이 될 것이다.

자신들이 걸어 온 삶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회원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담임목사님과 젊은 성도들이 성큼 더 가까워지는 산뜻한 볼 소풍이 될 것이다. 아울러 유아부 전도사님이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여 어린아이들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함으로써 30대 초보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걱정 없이 맘껏 자신들의 수련회에 몰입할 수 있도록 준비 되고 있다.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듯 기존 4개의 30대 남녀 선교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그 걸음마를 댄지 백일만에 열리는 첫 수련회는 갓즈윌 청장년 선교회의 백일 잔치이기도 하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갓즈윌 선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든든한 믿음의 젊은 공동체로 우뚝 서는 모멘텀, 그 '어메이징 모멘트'가 되기를 기도한다.



있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Zhou Wen 형제

형제, 자매님 여러분 안녕!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서 저는 김성국 목사님의 설교와 짧은 비디오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여러가지 시험과 각 사람에게 있는 많고 적은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성경구절이 저의 머리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2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일 예배 때, 천주제 전도사님께서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나누셨는데 바로 사람은 항상 잊어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주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분의 말씀을 잊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때의 감동을 잊고 삽니다. 새벽기도와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죄사함, 긍휼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왜 자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을 잃고 십자가의 좁은 길에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최근 주일설교 중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연약할 때 있었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그분은 왜 승리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므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할레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바라보면, 왜 자주 연약하여 넘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믿음 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겁이 많아서 때로는 도망치기도 합니다. 육체의 손실을 보게 될까 두려워 우리는 물질이 풍부한 시대에서 영적인 공급보다 육체적인 만족을 선택합니다. 마귀의 여러가지 유혹으로 인해, 우리는 처음 목표를 잊고 삽니다. 요한서 2장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을 잃고 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매 시각마다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새벽기도회의 은혜를 한마디로 요약 한다면 “너는 너의 갈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좁은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다하여 주님과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不要做一个健忘的人

周闻弟兄

兄弟姐妹们平安! 在这次的四十日四旬斋晨祷会, 通过金星局牧师的分享及每次晨祷会播放的短片我看到了每个基督徒都会遇到的种种试探以及在每个人身上多多少少都会出现的软弱. 最近有段经文一直浮现在我的脑海里. 这句经文是启示录2章4-5节, 经上说: “然而有一件事我要责备你, 就是你把起初的爱心离弃了. 所以应当回想你是从哪里坠落的, 并要悔改, 行起初所行的事. 你若不悔改, 我就临到你那里, 把你的灯台从原处挪去”. 在主日崇拜的时候, 陈玉捷传道分享了一段很实在的信息那就是人是健忘的. 我们总是在不知不觉中忘记了神, 忘记了祂的话语, 我们忘记了当时那份使我们回转归向祂的感动. 晨祷会及主日两边的信息一起警醒了我, 让我要不断的祈求神的赦免、怜悯及拯救. 在祷告完后, 我一直在思想为什么人都会在不知不觉中迷失了方向, 偏离了十字架的窄路。

最近在主日信息中我领受到了主耶稣得胜的原因. 我们的主也有软弱的时候但为什么我们失败了而祂却得胜了呢? 答案是因为祂有明确的目标. 因祂爱我们的缘故, 也因着祂对天父的信心选择顺服天父的旨意. 祂知道祂来到世上的目的就是要拯救我们脱离罪和死亡的捆绑, 所以就算代价是要牺牲祂自己也心甘情愿. 哈利路亚, 感谢赞美我们的主。

反过来看看我们自己, 为什么我们会时常软弱跌倒? 最大的一点就是信心的缺乏. 因为我们对神没有信心我们不能忍耐. 我们会靠着自己的知识和能力去解决问题. 我们不愿意等, 不愿意顺服还会因胆怯而选择逃避. 我们的肉体害怕受亏损导致在这物质丰富的时代里, 我们常会选择体贴肉体而非灵体的需要. 我们会因着魔鬼的各种诱惑而忘记我们起初的目标. 就像约翰一书2张15节所说: “不要爱世界和世界上的事. 人若爱世界, 爱父的心就不在他里面了”。

我们总会在不知不觉中迷失了方向. 兄弟姐妹们, 愿我们时时刻刻都要保持警醒预备主的再来. 求主保守看顾我们软弱的心, 好叫我们靠着对祂信心能看清祂的旨意. 我们不能做一个健忘的人, 要时刻牢记我们的目标是为了成就阿爸天父所托付给我们每个人的使命. 在最后, 用晨祷会所领受的一句话: “十字架的窄路我们要一起走, 不可以你走你的路我走我的路。” 来鼓励兄弟姐妹们同心协力让我们与主一同走那荣耀的道路. 谢谢大家,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심성문 집사

나는 18년전 미국에 이민오게 되었다. 이민온 분들이 특별히 신앙이 없으면 그랬듯이 나도 그렇게 작은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성도라기보다는 교회의 한 일원일 뿐 사정이 생기면 안 나가고, 못 나가고 그랬다.

그러던 중에 아내 친구의 집에 초대되어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책상에 놓여진 주보가 유난히 내 눈길을 끌었다. 내용에 관심이 가면서 자세히 다 읽고 난 나는 퀸즈장로교회에 한번 예배 드려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혼자 방문해 예배를 드리던 중 나는 찬양과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아들과 함께 등록을 하게 됨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순절의 기적 박승희 집사

사순절이 되어야 새벽을 깨울 수 있었다. 깨어있어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면 다짐은 아이를 키우는 핑계로 무뎠고 나태하고 타협해갔다. 믿음의 동역자들의 넘어짐에도 방관하며 내 짐만 바라보며 혈떡이는 부끄러운 엄마였고 깨어있어 함께가자 손 내밀어주지 못한 무능력한 크리스찬이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리 다름바 없는 다른 죄를 매일 지고 사는 죄인이다.

매일 천로역정 영상 속의 크리스찬과 함께 그 천성 가는 길을 여행하듯 걸어간다. 나의 모습이다. 매일 만나는 어려움, 시험, 고난속에 이겨내고 좁은 길 가는 크리스찬처럼 연단되고 성화되어지는 모습도 있지만, 걱정하고 두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지혜 이나 청년

“40일동안 나의 아침 잠을 주님앞에 lent합니다.” 사순절특새를 시작하면서 SNS에까지 올리며 결심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건만 달콤하고 소중한 아침 잠 앞에 저는 오늘도 무너졌습니다.

이번 40일특새를 맞으면서 꼭 이루고자 했던 기도제목은 주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비춰지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운데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가 제게는 믿음으로 직결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기도할때마다 어느 한 책에서 D.L. 무디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성경책은 덮어놓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만 했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공부하

그 날 집에 초대해 준 심권사님께 감사한다. 작년에 등록하게 되었고 지금은 찬양대와 QBC 에 열심히 참석하며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다. 난생 처음으로 사순절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첫날부터 말씀의 감동을 주시고, 내 죄를 자꾸 들여다보며 회개하게 하신다.

내일은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질까 기대하며 새벽예배에 참석한다. 예수님을 알아 가는게 이런 설레임이 있는줄 왜 예전엔 몰랐을까! 나는 내 삶으로 변화를 받아 내 아내도 교회로 인도해야 하고 주위에 내 신앙때문에 뜨문뜨문 만나는 친구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게 다가온다.

또한 천성에 가는 길에 만나는 많은 사건과 유혹들을 영상을 통해 보면서 이해가 된다. 하지만 앞을 똑바로 보고 천성을 목표로 삼은 자의 길을 갈 때에 승리만이 있는 것을 다시 말씀으로 깨우침 받게 해주시는 담임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순절이 끝나는 날, 부활의 주님을 맞으며 나도 승리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

려워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 또한 나의 모습이다. 짐이 크리스찬에게서 벗어져나갈때 스물스물 올라왔던 삶의 짐을 내려놓았고, 담을 넘는 형식주의와 위선을 보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회개의 여정을 이어간다. 무서운 사자들의 공격에도 꺾이지 않던 바로보고 가는 크리스찬을 보며 요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만 가겠다 다짐하며 나아간다.

나의 천성가는 길의 여행은 순간순간 맞닥뜨리지는 고비고비마다 좁은 길,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 길, 그 외로운 싸움을 싸우며 천성에 가기 소원한다. 발버둥친다. 치우치지 않기 위해, 현혹되지 않기 위해.

Already, But not yet.

이 땅에서 누릴 천국이 내가 서있는 이곳이 되길 소망하며 마침내 나의 여행의 목적지인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싸우며 걸어간다.

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면 집에만 오면 습관처럼 컴퓨터를 켜고 드라마를 봤습니다. 내가 정말 시간이 없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자. 남은 시간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는 시간을 먼저 구별해서, 말씀을 먼저 읽어야 겠다.” 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하다가도 정해진 시간만 되면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소중한 것들을 내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다보면 하나님이 축복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특새가 3주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화이팅해서 나의 소중한 아침 잠을 더 소중한 하나님을 위해서 lent합니다.



내려놓음의 깨달음 이길자 권사

저는 요즘 익어가는 나이로, 시작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고 싶은 루디아선교회원입니다.

“ 후회의 날은 사단의 생각이고 미래 지향적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여기까지 주님은 나를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순절 새벽기도를 통해 내려 놓음의 깨달음을 또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로 동행해 주셨지만 말씀의 커튼을 찢으면 감사를 빼앗기고 유혹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럴때마다 주신 것이 더 많은데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잊어 버리지 않게 하셨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오단 집사

2018년 사순절 새벽기도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사순절입니다. 왜냐하면 한살 된 딸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많이 두려웠습니다. 어린 아기와 함께 새벽기도를 갈 수 있을까?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을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첫째날, 자는 아기를 깨워서 교회로 갔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자모실에 도착하는 순간 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첫 아기를 데리고 오는 부모도 있었고 아이를 두명, 세명씩 데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새벽기도라 힘들어서 아이들이 적을거라 생각했는데 5개월된 아기부터 6살이 된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자모실을 꽉 채운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주님도 놀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문 열어 주시는 목사님

오늘은 웬일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 열쇠가 잘 맞지 않는 듯 문이 열리지 않았다. 어찌할까하며 문 앞에서 있는데 때마침 지나가시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문을 못 열고 있음을 보시고 발길을 멈추셨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사무실의 문을 열어주셔서 무사히 사무실에 들어오게 되었다.

순간 맘속에 던져지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문 열어 주시는 목사님'이었다. 목사님은 이렇게 실제의 삶 속에서도 문을 열어주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의 굳어져 있고 닫혀있는 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셨다. 오늘도 새벽을 찬양과 기도로 깨우는 권장의 사순절 새벽예배가 있었다. 거기에 무엇 보다 뜨거움을 더 하는 것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주님이 가신 길, 그 발자국을 따라가며 주님 닮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의 갈급한 마음에 대비 같은 말씀으로 촉촉이 가득 채워 꿀을 먹여주신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가슴 가득히 채운다. 또한 주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신다.

따스한 불에 새순이 돌아나듯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단비로 인한 파릇한 새순이 돌아나고 따스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쑥쑥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매일매일 능력있는 말씀으로 송이 꼴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천성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더 따뜻함으로 피할 길을 예비하시어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연일연야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경배찬양팀! 매년 주제에 맞추어 곡을 만드는 오목사님! 합심기도시간과 잇을 수없는 아침 베이스, 이런 저런 모습들로 성도들을 섬기시는 교회 안팎의 모든 봉사자들까지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그 넓은 사랑 체험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깊은 동기를 또 다시 선물로 받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기쁨과 넘치는 사랑으로 체험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순절이 있기에 오늘도 입가에 기쁨을 감출수 없게 해 주시는 예수님!!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을!

편집부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는 믿음을 바로 세우는데 중요합니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그 의미를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절기로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은 고난 주간의 금요일에 죽어 장사되신 주님이 삼일만인 일요일, 곧 주일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을 ‘파스카’(Psacha)로 불렀습니다. 이는 구약의 유월절(Passover)을 뜻하는 히브리어 ‘페사흐’(j s p)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는 구약의 초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 희생을 당한 사실에 근거하여 구약의 유월절을 예수의 부활 기념일로 변용시켜 기념한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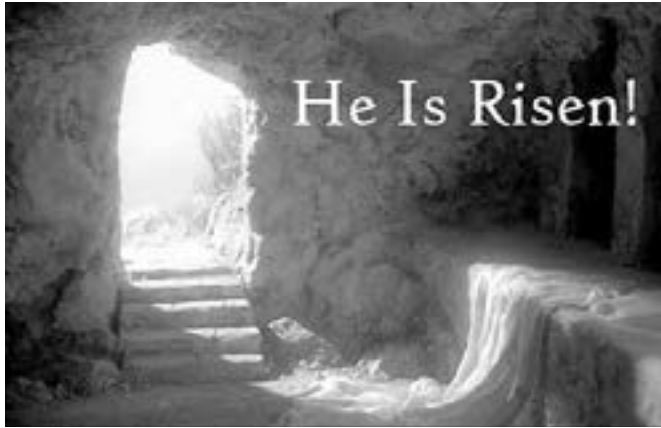
한편 부활절을 의미하는 영어 ‘이스터’(Easter)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인 Eastre와 Ostara가 합성된 말로, 유럽의 튜튼족이 숭배한 새벽과 봄의 여신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즉 새벽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봄은 새 생명이 겨울을 이기고 나온다는 의미에서 각각 부활절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바 두 단어를 합성하여 부활절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절의 유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에 관련된 것이며 부활절의 기념과 그 행사에 대한 것은 유월절과 관련되어 잠깐 언급될 뿐입니다(고전 5:7).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종교력으로 1월인 니산월 14일, 즉 유월절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이 부활절로 변용되어 기념된 것은, 예수의 부활이 유월절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출애굽시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당시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과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이 그 의미에 있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출 12:13)

전통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동로마 교회들의 성도들은 부활절에 양고기를 먹으면서 승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도 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일부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 주일 이전의 월요일로부터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 행사로 금식이 행해졌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주일에는 함께 애찬과 성찬을 나누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마 교회들은 어떻게 부활절을 기념했는지, 또 그 시기는 언제였는지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서로마 교회에서는 유월절에 기초해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동로마 교회와는 달리 유대 전승에 근거한 부활절을 거부하고 보다 성경의 기록에 근거한, 로마 전승을 반영한 부활절을 기념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 서로마 교회는 부활절 시기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는 못했으나, 이날을 성대하게 기념한 것은 동일했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부활절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이들 교회들은 부활절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 교회들은 부활절 전날 촛불을 밝히며 부활절 전야제 등을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모세 오경과 주님의 수난 설화 등을 낭독하였으며, 성유를 바르는 의식 및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부활절 새벽예배(일출 예배)

부활절에 행해지는 대표적인 풍습으로 부활절 새벽예배가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시대부터 행해진 것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 위로 세 번 뛰어 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뚫고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 광선은 기쁨의 춤을 추는 천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해가 솟아오르는 순간을 보기 위해 새벽에 넓은 들이나 언덕 꼭대기에 모여 기도와 노래, 부활 축하 타종 등으로 해돋이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부활절 새벽예배를 촛불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교육

성도의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는 첫 걸음

최성은 집사

3월 25일 있을 성례 예배를 위해 주일 2부 예배 후 오전 11:45분부터 교회 210호 (학습)와 213호 (입교/세례)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고등부 세례/학습자는 고등부 자체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받고 있다. 3월 11일, 2부 예배 후 교육이 진행되는 213호를 방문해보니 15명의 교육생들이 좁은 방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기로 가득 메우고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교육위원회에서 발간한 금란출판사의 한영 세례 문답서를 가지고 김재형 목사님께서서는 6명의 남성 성도님과 9명의 여성 성도님으로 구성된 교육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계셨다.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한영 대조 세례 문답서는 성례에서 질문되는 일반적인 질문들과 성경, 그리스도, 회개와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그리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순서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었다.

김재형 목사님께서서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유형과 참교회의 표지, 권징의 목적과 결과, 교회 정치 형태, 구원에 대한 성경의 5대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셨고 그 관련 성경 구절을 제시해주셨다.

구원에 대한 성경의 5대 기본 진리는 (1)인간의 전적 부패 (롬 8:7, 3:10-18, 엡 2:1, 창 6:5, 8:21) (2) 무조건적 선택 (요 6:37-40, 15:16, 엡 1:4-6, 행 13:48) (3) 제한적 속죄 (마:21, 요 10:14-15, 17:9, 롬 8:30) (4) 불가항력적 은혜 (요 6:37, 3:8) (5)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요 10:28-30, 빌 1:6, 롬 8:38-39)이다. 이어 목사님께서서는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세가지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임을 강조해주셨다. 또한 말씀의 유익과 성례 (세례와 성찬)의 의미, 그리고 기도에 관한 강의를 알기쉬운 예화와 함께 이어졌다.

모든 교육생들의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너무나 진지하고 열심인 태도를 통해 그들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을 아는 기본 진리에 대한 든든한 교육을 받고 학습, 입교,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도의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시는 교육생들께 무한한 축하와 기도의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GetCovered NYC 뉴욕시 건강 보험 가입 안내

무료 B형 간염검사(KCS 주관)와 정부 건강보험 신청 상담이 'GetCovered NYC' 주관으로 3/3(토) 오전 7:00-8:00에 지하 친교실에서 있었습니다. 신분과 연령에 제한없이 교인들에게 무료 B형 간염검사를 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건강보험을 들 수 있도록 연결해주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행사였습니다.

당일 본 교회 행사에 참여하여 건강보험 신청 상담을 해준 'GetCovered NYC'의 글로리아 윤씨를 통해 건강 보험의 종류와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 등,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GetCovered NYC(갯커버 엔와이씨)는 뉴욕시 건강 보험 가입 안내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2016년 빌 데 블라지오 시장에 의해 공공 참여 유닛 (Public Engagement Unit)의 일환으로 시작 되었으며 뉴욕시 공공병원(NYC Health and Hospitals), 뉴욕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메트로 플러스(MetroPlus) 및 지역 단체와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에게 건강 보험 옵션을 알려드리고 건강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 가까운 장소를 연결해 드립니다. 아웃리치 스페셜리스트는 뉴욕시 5개 보로 지역(맨하탄, 퀸즈, 브록클린,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테이블링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 10가지 이상의 언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건강 보험 옵션은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 보험, 에센셜 플랜, 유자격 플랜(오바마 케어), 메디케어가 있습니다. 보험 옵션 마다 대상자의 신분, 가족 인원수, 월 소득 기준에 따라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어린이 건강보험은 19세 미만의 어린이들로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메디케이드는 소득이 뉴욕주 저소득 가이드라인 기준이어야하며, 프루콜 (PRUCOL:The Permanent Residence Under Color of Law),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산부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기준보다 수입이 높을 경우 에센셜 플랜 (프루콜 및 비자 소지자 포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이 에센셜 플랜보다 높을 경우 오바마케어로 알고계신 유자격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유자격 플랜은 공개가입기간 11월 1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개가입기간 이후에는 결혼, 출산, 이혼 등에 의한 가족 구성원 변화 또는 시민권,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신분 변경, 일자리를 잃는 등의 특별가입에 대상자에 조건이 될 경우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서류미비자로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실 경우, 뉴욕시 공공병원 옵션 프로그램 및 지역 보건소를 통해 소득 수입 기준에 따라 무료 혹은 저비용으로 의사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교통사고 혹은 부상을 당해 병원 응급실에 가게됐을 경우, 응급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민 신분이 없는 분, 합법적 이민자는 물론 유학생, 잠시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메디케이드 카드는 응급 상황 전,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욕시 건강 보험 옵션 및 가입 문의는 글로리아 윤, 전화/문자 646-877-2324 이메일 yuneb@hra.nyc.gov로 연락주시면 한국어와 영어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마하나임 경배와 찬양 |
천성가는 길은 새벽5:30분에 출발합니다!
김지현 집사



“할렐루야! 천성가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적막을 깨는 우렁찬 모독사님의 외침으로 오늘도 사순절 새벽기도회는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기도회를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찬양을 인도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잠에서 깨어 대충 가꾸고 나와서 아무도 못보는 사이에 조용히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가면 얼마나 좋으련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강대상 앞에서 새벽에 풀리지 않는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면 어떤 때에는 목소리가 안올라가 그저 마음과 표정으로만 찬양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찬양은 오로지 목소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기쁨과 온 몸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항상 기쁨과 자신감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찬양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 목사님께서 만드신 ‘천성가는 길 멀고 험해도’ 를 매일 부르다 보니 이제 기차 안에서, 일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느새 콧소리 흥얼거리며 찬양이 나옵니다. 매년 사순절 기도회 때마다 주제를 맞는 찬양을 만드셔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시는 오 목사님... 목사님의 열정과 끝없이 넘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힘을 볼 때 “오-!!!!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과 찬양팀의 리더가 되셔서 청년들의 앞에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우리 청년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은 우리 교회의 미래의 든든한 기초를 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찬양팀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맛있는 식사보다, 따뜻한 격려의 말씀보다 우리와 함께 힘찬 찬양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인해 우리 찬양팀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내일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물론 맛있는 저녁을 사 주신다면 거절하지는 않겠지만요...

젊은이들에게 밤은 황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친구들과 교제도 해야하고 밀린 공부도 밤이 늦도록 해야하며,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은 교회 예배와 청년부 모임을 섬기느라 힘이 때가 많습니다. 새벽을 위해 황금과 같은 밤을 포기하고 일찍 준비하는 우리 찬양팀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청년 찬양팀은 교회의 부름이 있을 때마다 WHY? 라는 질문이 아닌 WHERE? 이라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을 수도 있을텐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름에 “어디로 가야하나요?”라고 반응하는 청년들 + 집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길 같이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차량위원회 |
야광봉의 안내를 따라 함께 가는 천성길
최성호 집사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위해 차량위원회에서는 주차와 안내, 밴 운영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새벽기도회의 섬김은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섬김입니다.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출근시간과 이동거리, 자녀들의 등교시간 등등 모든 환경과 조건이 하나로 일치해야만 합니다. 전체 차량위원회 회원 중 사순절을 섬길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 자녀들이 장성하여 돌볼 자녀가 없으신 어르신들(?)께서 사순절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두운 새벽, 가장 먼저 교회로 속속 도착해서 야광지휘봉을 들고 각자의 자리로 이동하여 밴 운전자들이 성도들을 모시고 들어오는 시간을 잘 살펴 일반 성도들의 차량과 혼잡을 빚지 않도록 안내를 시작합니다. 주차부에 소속된 2달차를 맞을 때라 처음 몇일은 다소 긴장을 하였지만, 3,4일 차가 되니 교인들의 차량이 몰려 들어오는 시간대와 밴들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정확하게 가늠이 되었고, 교인들 중 기도회를 마치고 속히 차를 빼서 나가야하는 분들과 늦게까지 교제를 하고 나오시는 차들을 파악하고 나니 이후로는 교인들 스스로 주차하는 장소를 적당하게 잘 찾아 질서있게 주차를 하십니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을 모신 밴이 들어오면 재빠르게 달려가 권사님들이 밴에서 내리시는 것을 도우며 권사님들이 양손에 쥐어주는 사탕을 받기도 합니다. 6대의 교회 밴 중 한대는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는 밴입니다. 차량 운전 역시 젊은 청년이 맡아서 한 차 가득 10여명의 청년대학부와 선교위원회의 회원들을 싣고 오기에 청년밴이 들어오면 덩달아 활력을 얻고 문을 힘차게 열어 반가움을 표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청년밴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여느때와 같이 문을 확 열어 인사를 했는데,, 텅 비어있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함에 자초지정을 물으니,, 청년 운전자가 늦잠을 자서 청년들을 하나도 못 태우고 빈 차로 혼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대형사고(?) 였습니다. 웃지못할 일이지만 어이없음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밴을 기다리던 청년들은 삼삼오오 짝지어서 다른 차편을 구해 기도회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두운데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야광봉을 흔들고 때때로 차가 제때에 빠지지 못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차주인을 찾아다녀야 하는 섬김이며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이 쪽예배(?)를 드러야하는 처지와 눈, 비라도 오고 바람 세찬 날에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를 몸소 체험하는 섬김이지만 주님이 맡기신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멀찍이 서서 야광봉으로 둥글게 둥글게 원을 한번씩 그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량위원회 안내부원들의 섬김으로 험한 길, 천성에 가는 길을 권장의 모든 성도가 함께 갑니다.

| 방송실 |
영상과 자막, 음향과 조명을 하나로
편집부



새벽예배의 시작은 5시45분이지만 방송실의 섬김은 5시에 시작됩니다. 카메라와 마이크 설치, 설교와 찬양 자막, 준비된 천로역정 동영상 파일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예배를 기다립니다. 방송실에는 카메라, 음향, 자막, 조명을 맡은 각자의 섬김이 있으며 한 호흡을 맞추기 위해 온 신경과 감각을 집중하며 섬깁니다.

방송실의 전반적인 일을 총괄하는 안병훈 집사에게 사순절 방송실의 에피소드를 물으니, “우리가 하는 일은 순간을 담고, 시간에 몰입하는 일입니다. 엄격한 통제와 압박속에서 반복과 창조를 동시에 기록해야하는 일입니다. 재미나 에피소드는 찾기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간을 매 순간, 순간 의미있게 채우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없는 방송실의 사순절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꽃 튀는 사순절 눈삽 경주!

3월 7일 수요일은 뉴욕 일대에 종일 내린 눈 폭풍으로 온 천지가 하얗게 덮히고 몇몇 도로가 차단되고 교통수단이 중단되는 혼잡한 하루였습니다.

있는 것을 보고 송요한 목사님과 송동률 장로님, 윤석현 집사님께서 눈 삽을 하나씩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나란히 사이 좋게 눈삽을 들고 정렬을 하시나 싶더니.. 이내 경주를 하십니다.

다음날인 3월 8일 목요일 새벽 5시가 채 않은 시간, 새벽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곳곳에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전날 곳은 일기 가운데서도 늦은 시간까지 눈보라를 맞으며 교회 내부주차장 및 코너주차장과 교회건물 앞에 쌓여가는 눈을 실물 없이 치워낸 시설부와 직원들의 수고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큰 어려움 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강풍에 날려 쌓였던 눈들이 녹으며 교회 내부 주차장 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탓에 바닥 곳곳에 눈 녹은 물이 흥건하게

2018년 사순절, 천성에 가는 길을 함께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은 그 새벽 불꽃 튀는 눈삽 경주를 하였습니다.

세겹 삼이 되어 달리는 그들의 앞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거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불꽃 튀게 달려나갈 뿐입니다. 권장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과 함께 불꽃 튀며 달려가는 사순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중국어 통역부 |
세번째 사순절 통역 - 中文翻译部-四旬斋的祷告会
 남위홍 집사 南伟红执事



사순절 새벽첫날, 기대와 설렘과 긴장감 속에서 첫 타자로 손요한 전도사님께서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어폰 하나 쟁겨서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통역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전도사님의 조금은 긴장(?)된듯한 숨소리가 섞여 있음을 느끼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순간임을 알고 함께 기도하며 설교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통역실의 이어폰이 말썹이었던 것 입니다. 첫날의 사고에 연신 놀란 가슴을 쓰다듬으며 이튿날 좀 일찍 나가서 대비하고 통역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중간에 또 마이크가 말썹이어서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예배를 마치고나서 저희는 천전도사님께 말씀드리고 방송실에 연락해서 거듭 체크하고 또 체크하여 세번째 날부터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완전히 깨기도 전에 정신을 가다듬고 담임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라도 놓칠까 집중해서 통역을 해야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저희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알고 그 무게를 함께 견뎌가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수 있음에 감격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통역을 통한 말씀이라도 사모하며 새벽을 밝히는 귀한 중국어예배부의 성도님들에게도, 이어폰 소리때문에 조

| 영어 통역부 |
어려움 뒤에 얻은 놀라운 일
 차평화 전도사



2018년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란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여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인데 살아 보면 험한 일들이 있을 때 비틀거리며 넘어 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 넘어질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1) **길이 험할 때에는 우리가 가고 있는 천국을 보라.** 어떤 여정에서도, 가는 길에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기다리고 있는 목적지를 보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멈추는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잠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됐습니다.

弟兄姐妹们平安! 今年是我第三次和中文堂的弟兄姐妹们一起迎接四旬斋的祷告会。在翻译部服事期间,有好多让我感恩的时刻,也有过好多激动人心的时刻。今年更使我感恩的是多了两个同工。就是与孙约翰传道和金三喜执事一起担当此次的翻译事工,一想到这离神所赐给我们的多元化民族宣教的异象和使命又近了一步,真的是兴奋不已。祷告会的第一天满怀期待和稍有的紧张感,孙传道首先出局做翻译。我也拿了一副耳机进了礼拜堂听翻译。在通过耳机传来的声音当中我感觉到传道略微的紧张感,心里想这也是神给我们的一个训练的时刻,就默默为传道祷告。但是突然听不见声音了!有一阵的静寂之后,才恢复了声音。

后来才发现是因为翻译室的耳机出现问题。对第一天的事故,我们真是吓到了。于是第二天早点出去预备,谁知中间又因为麦克风的问题,又出现了一段不出声的事故。早祷告会结束后我们就向陈传道告知,并请影像部再次检查,确定不再有任何问题发生。

虽然每天清晨在还没有完全睡醒的状态下,要集中精力去听主任牧师在讲台上的每一句话,并且要当场翻译出来的这个翻译事工并不是一件容易的事情,但一想到我们是在传达生命的话语,其任务是非常艰巨的,我们共同扛起责任,也很感恩能成为神所使用的器皿。感谢中文堂的弟兄姐妹们,不嫌我们的不够熟练和不够专业的翻译,每天早晨怀着渴慕神话语的宝贵的心来到主的面前,也感谢韩文堂弟兄姐妹们对我们翻译事工的理解和支持。相信神的恩典与平安与每一位弟兄姐妹同在!也希望众弟兄姐妹们为我们翻译部的进步和复兴继续祷告和支持!

금은 불편하지만 기꺼이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감싸 안아주시는 한국어 예배부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하여 더 노력하고 더 부흥하는 중국어통역부가 될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 **길이 험할 때 같이 달려 가는 백성들을 보라.** 예배실에 한국말, 영어, 중국말, 러시아 말 하는 성도님들이 문화 차이와 언어 차이가 있음에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그리스도 아니었으면, 교회가 아니었으면 같이 모일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생각 하게됐습니다. 통역실에 중국 통역도 있는데 작은 공간에서 통역을 하면서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언어로 통역되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3) **길이 험할 때 하나님 은혜를 보라.** 힘든 때가 와서 내가 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고민을 할 때 십자가를 보면 필요한 모든 대답들이 나옵니다. 우리 상황에 대해서 다는 모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보면 의심없이 하나님 뜻을 믿게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처음으로 한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집사님”으로 통역했던 것이 생각합니다. 그때는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순절 동안 영어권,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통역을 하면서 그 때의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갈 때에 길이 험하여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함께 달려가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천성에 가는 날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마르다 선교회 헌신 예배
우리는 누구인가?
 조성순 집사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들이 모였다. 콩나물 교실에서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받던 마지막 세대들, 위로는 부모님을 섬기고 밑으로는 자녀들을 키워내는 50대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여정에서 아래 위로 치이는 그들이 드리는 헌신 예배이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저들이 ‘우물가의 여인’을 통하여 나는 누구 인가를 돌아보는 모습을 본다. 몸으로 찬양하기엔 조금은 쑥스러운 모습이 엿보이지만 마음껏 찬양을 리더해 나가는 저들의 모습엔 기쁨이 넘친다.

‘오직 은혜로 택하여 부르신 제자 베드로와 같이 순종하고 어떤 환란과 광야의 삶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있기를’ 권하는 오인수 목사의 말씀은 함께 예배하는 모든 권장의 식구들에게 은혜가 더해지고 있었다.

어린 천사들의 천성은 길
 이송은 집사



사순절 새벽기도에 나오기를 고대하면서 모세와 리즈가 일찍 잠이든다. 이른 새벽 일어나서 졸립다고 말하면서도 한번도 안가겠다는 말이 따라 나온다. 주중에는 자모실에서 토요일에는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삼주가 지났다. 사실 자모실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 끊임없이 작은 소음과 움직임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소음과 움직임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다섯살 리즈가 목사님 설교중 찬양이 끝나는 찰나 ‘할렐루야~ 아멘.’ 하며 웃는다. 리즈가 한살 된 금이와 예지를 돌봐주고 케이트린은 리즈를 돌봐준다. 금이와 예지는 자기보다 더 어린 아가들이 앉아있는 car seat을 웅알웅알 말을 걸며 흔들여 준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해도 컵속의 씨리얼을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쳐다보며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금이가 침이 살짝 묻은 손으로 리즈의 입에 씨리얼을 넣어 주면 리즈는 “나를 좋아 하나봐!”라고 말하며 완전 행복해 한다. 티미가 자모실 유리창으로 예배당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케일라가 용을 쓰면서 창들로 기어오른다.

승혜, 지혜, 주혜도 일찍 나와 간식을 먹으며 숙제를 하기도하며 조용히

예배에 임한다. 찬유와 지효도 조용히 자기들보다 큰 아이들을 보며 예배를 배운다. 소리나는 장난감을 가져와 스위치 올리는 아이에게 옆에 아이가 씯~! 하며 손가락으로 입을 가린다. 끊임없는 작은 소리가 들리나 이 이른 새벽에 칭얼대는 아이나 우는 아이는 한명도 없다. 믿음이와 소망이는 소리없이 베이글을 먹으며 종이접기를 한다. 소망이는 설교 후에 기도시간이 끝나자 “주님~ 주님~” 외쳐 부르며 자모실을 나간다. 아빠를 찾아가는 걸음이다.

한국말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가사내용은 잘 전달이 안되지만 학교가는 길과 집에서 숙제를 하면서 리즈가 ‘천성 가는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고 또 부른다.자모실의 아이들이 해를 거듭 할수록 몸이 성장하며 영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본다. 우리 눈에는 그냥 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귀가 열려있어 말씀과 찬양을 듣고 그 작은 입술로 주님을 부르고 찬양을 함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자모실의 아이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고 있다.



청년선교위원회

성령과 함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예배!

남형욱 장로

“저는 쿨장 다니지 않아요!”
“저두요.”

지난 1월에 청년선교회 수련회중 옆에 앉은 두세 사람끼리 조를 짜서 인사하고, 기도제목을 나누라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주변을 돌아보니 얼굴이 낯설은 두 청년이 보여서 “우리교회에 언제부터 출석하셨나요?” 라는 말로 인사를 하자마자 두명 모두에게 받은 답변입니다.

지난 3년간 새가족위원회를 맡았었기에 새가족 청년들을 포함해 웬만한 청년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차, 모르는 얼굴들이 보여서 “우리교회 출석하는 청년들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라는 미안한 마음에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고 두 청년 모두가 같은 답변을 하여, 내심 당황했지만 어떻게 수련회를 참가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수련회 참석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나누며 어떻게 이번 수련회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놀랍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2년째 우리 교회 청년수련회를 참석하고 있노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연인즉 두명 모두 부모님과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에는 청년들이 없어 같은 또래의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너무 그리워 친구들의 소개로 우리 교회 수련회에 벌써 2년째 다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 본인들에게는 불편하고 아쉬운점이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 마음들이 너무 이뻐보였고, 한편으로는 청년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에는 전성호 전도사님께서 청년선교회를 맡으시기 이전이라 청년대학부를 맡으신 오인수 목사님께서 청년선교회 수련회에도 동행해주셨고 청년선교회와 청년대학부가 따로 드리던 금요일 배도 하나로 함께 고등부실에서 드리던 때였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후 오인수 목사님과 같이 교회로 돌아오면서 수고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청년사역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부서를 다 감당하시게 되어 힘드시지 않냐고 물어보니 도리어 너무 힘이 나며, 너무 감사하다는 답변과 함께, 단 한가지 아쉬운 점은 따로 드리던 청년예배가 하나로 드리다 보니 청년들의 금요일배 참석은 더 많아진 것

에 비해, 장소가 비좁아 지기 시작했다고 아쉬워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청년예배 장소가 비좁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청년예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타교회 청년들이 부모님과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또래들과 함께 맘껏 찬양하고 예배 드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 목사님과 이 기도제목을 가지고 상의를 드리던 중, 본당사용이 가능할지를 기도해 보자라는 것에 둘의 마음이 닿았고, 수련회를 내려와서 담임목사님께 수련회 잘 다녀왔다고 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위의 두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본당 사용 여부에 대해 조심스럽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고등부실이 좁다고는 하지만 50여명의 청년들을 위해 본당문을 열어 주실까? 라는 걱정은 괜한 염려였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다민족사역을 하는 우리교회인데 예배를 소망하는 청년들에게 타교회 출석여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뉴욕의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 본당을 열어주어 열린 예배를 드리게 하자! 한국어 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의 모든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자!” 라는 더 큰 비전과 함께 적은 수로 시작하는 예배이지만 성령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프누마 워십’이라는 예배의 타이틀도 지어주셨습니다. (PNEUMA WORSHIP : 프누마는 헬라어로 ‘성령’을 가르킴) 이후 청년선교위원회에 합류하신 전성호 전도사님과 청년대학부의 함용식 장로님 그리고 오인수

목사님의 지도에 청년선교회, 청년대학부의 임원, 리더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예배 후에 프누마 워십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13일 금요일, 정식 예배 오픈일을 준비 삼아 지난 3월부터는 본당에서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와는 다르게 청년들이 삶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본문의 내용과 대비하여 각자의 셀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배 자리에서 바로 질문하고 그 질문 중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내용 몇 가지를 가지고 오인수목사님께서 답변과 함께 성경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새롭게 전하는 말씀의 방식은 삶에서 청년들이 바로 적용할수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느헤미야를 매주 한장씩 통독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 가운데 느헤미야 시대의 각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한 모퉁이를 책임지고 재건해 가듯, 우리 청년들도 이 예배를 위해 자기가 맡은 한 부분을 책임감을 가지고 세워 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벽의 재건이 내가 맡은 부분만 잘 세운다고 완성되지 않듯이 청년들의 프누마 워십도 청년들만으로는 잘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며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쿨장의 청년들이, 뉴욕의 청년들이,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오기를 소망하며 4월13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셔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청년들을 통해 주님께서 예정하신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뉴욕의 모든 청년들을 부르는 예배 - 프누마 워십

최재영 청년



볼과 몇해 전만 해도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금요일배 혹은 금요일 청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되어서야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금요일배를 드릴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듣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특별하고 귀한 예배를 드릴수 있도록 허락 해주신 김성국 목사님, 그리고 깊게 나아가서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프누마 워십과 같은 모두에게 공개된 예배를 구하는 기도를 지난해 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는 맨하탄 34가 케이트타운으로 저녁을 먹으러 간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전도축계에 초청하기위해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친구가 추천해주는 인기가 많다는 식당으로 가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평소였으면 경험 하지 못할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젊은 한인 청년들이 뉴욕에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를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멋지게 꾸며 입고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그 곳에서 친구와 있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화를 마친 뒤 친구는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떠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딸과 아들이 있을 텐데.. 그동안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하고 지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누마 워십은 우리 쿨즈장로교회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이 지역 교회들 가운데 금요일배가 사라져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과, 또 세상을 사랑하며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자리임을 확신합니다. 프누마 워십이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단 한번의 예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프누마 워십이 기존에 존재하던 청년 예배와 조금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시간입니다. 하브라라는 유대인의 교육방식을 접목시킨 말씀 시간은 다 함께 말씀을 읽은 뒤 세명 혹은 네명으로 이루어진 조로 나뉘어 본문 말씀을 읽으며 궁금했던 점, 혹은 나누고 싶은 부분을 함께 이야기 합니다. 그 뒤, Pigeonhole.com 이라는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각 팀 별로 나온 궁금점들을 질문을 하고 동시에 다른 팀에서 나온 모든 질문들을 보며 투표를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투표수를 받

은 질문들을 위주로 오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설교 말씀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 방식을 통해 그동안 알고 있던 “설교시간” 이라는 고정관념 위에 새로운 관점들을 더할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일반적으로 듣는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부족한 성격적, 역사적 지식 때문에 모든 부분을 이해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욱이 새신자나 초신자 분들에게는 매 예배가 그럴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배경과 무심코 지나쳤던 단어 하나 하나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되니 놀라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손으로 적는데서도 그치지 않고, 각 조에서 나뉘는 청년들과의 대화와 목사님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단단했던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삶에 적용 하는 단계까지 나아갈수 있었습니다. 프누마 워십은 부흥을 꿈꿉니다. 쿨즈장로교회 청년부의 숫자적 부흥 역시 소망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부흥은 숫자에 있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지는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라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귀한 청년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 하는 그날을 꿈 꿉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 꾸길 소망합니다.

프누마 워십을 통해 얻을수 있는 결과가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킬 거목들을 자라게 함에 있다고 생각 됩니다. 쿨즈 장로교회 청년부가 지금도 건강하지만 더욱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믿음의 청년들이 프누마 워십을 통해 세워지고 나아가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온기, 섬김의 향기 가득한 사순절

정인환 청년

‘천성에 가는 길 멀고 험해도’ 라는 사순절 새벽기도 제목과 같이 청년들에게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유난히 힘들어지는 시절입니다. 이른 새벽 힘있게 선포되는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힘입어 청년들은 삶에 지쳐가는 마음 문을 열고 담대한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가리라는 다짐을 합니다. 말씀과 뜨거운 기도 후에 이어지는 성도의 교제 시간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맛있는 베이글이 있어 더욱 즐겁습니다.

새벽 이슬과 같이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려노력하는 청년들이 예배와 기도를 마친 후 한자리에 모여앉아 나누는 커피는 그래서 더욱 뜻깊고 새로운 아침을 따뜻하게 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몇몇 청년들이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핸드드립 커피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커피 원두를, 다른 한 청년은 커피 그라인더를



가지고 와 친교실 테이블에서 즉석으로 신선하고 따뜻한 커피를 만들어냅니다. 커피를 갈고, 내리고, 서빙을 하면서 흘러나오는 청년들의 따뜻한 교제와 행복한 웃음소리가 주변의 성도님들까지도 즐겁게 합니다. 청년 선교부 청년들의 이런 따뜻한 사랑의 온기와 섬김의 향기가 온 뉴욕땅에 복음으로 울려 퍼지길 기도합니다.



이승조 집사
 Seung Cho Lee, PhD
 Research Specialist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NY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

제 2회 생명의 법칙

우리가 생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단순함이 모여 복잡성을 가져온다는 것 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각각의 재료들이 가공되고 조립되어 아름다운 집이 탄생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나 교회와 같은 사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각기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조직 (피부, 근육 등)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의 조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 줄기 세포 (예: 피부 줄기 세포) 라고 불리는 세포들이 분열하여 더 많은 세포를 만들어 내고 이는 여러 종류의 피부 세포로 분화됩니다.

하나의 세포에서 하나의 인간으로

세포 안에는 DNA를 포함하고 있는 핵 (nucleus)이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DNA는 각각의 부모에게서 50% 씩 물려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한개의 세포로부터 발달이 시작됩니다. 한 개의 수정란이 두개로 분열될 때에 DNA는 복제되고 이에 따라 세포가 분열하더라도 각 세포의 DNA의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 세포의 DNA는 복제되어 거의 유사한데 어떻게 200여가지의 세포가 존재할까요? 3만 여개의 유전자가 세포에서 동시에 켜지는 것이 아니라, 각 종류의 세포마다 일부의 유전자가 작동하거나 꺼짐으로서 세포의 다양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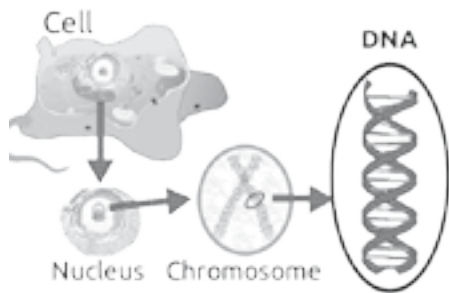
매우 신비로운 것은 이미 한개의 수정란이 만들어 질 때 그 수정란 안에는 그 사람의 모습과 성격 등이 담긴 정보가 압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단순함이 200 여가지, 총 40조개의 세포를 가진 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 하심과 놀라운 창조의 법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유전자의 DNA를 조절한다.

주변의 온도, 고도, 밤 낮의 주기, 식사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마다 우리 몸의 DNA는 끊임없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3만개의 유전자의 DNA는 실과 같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물리적으로 묶이거나 풀리면서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지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이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후성 유전학 (epigenetics)이라고 합니다.

봄에 산수유나 벚꽃이 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식물들은 온도 변화, 낮 밤의 주기 등을 인지하여 꽃을 피게하는 유전자의 DNA를 감싸고 있는 히스톤 (histone) 단백질에 변화를 주어 꽃이 피게 됩니다. 최근 100년 간 벚꽃의 개화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환경 오염과 이상 기후 (climate change) 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관심과 행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실 가스 뿐 아니라 황 및 질소 혼합물로 이루어진 대기오염 가스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질 및 토양 오염 등 모든 오염원은 모든 세포가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환경오염 뿐 아니라 무절제한 생활습관 (적절치 않은 음주 및 식습관) 도 세포의 DNA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어머니가 될 여성의 경우 음주, 흡연 등을 조



심하는 것은 상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남성의 경우 생활습관, 환경으로 인한 DNA 상의 변화가 후손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많은 연구 결과, 아버지가 될 남성의 정자 DNA에 많은 유전적, 후성유전적 돌연변이가 나타나며 일부는 자녀에 자폐증이나 다른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본인 자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후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이것이 행복한 가정 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전적 질병을 너무 두려워만 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 법칙에는 DNA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기작이 있습니다. 세포는 손상되거나 잘못 조절되고 있는 DNA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에는 DNA상의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암 예방에 몸의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은 인체 내에서 암세포를 인지하고 제거하는데 중요할 역할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와 같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과 건강한 생활 습관, 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모두의 노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생물 다양성

세포 수준에서 벗어나 지구 전체를 보게 되어도 매우 놀라운 창조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지구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미생물, 식물, 동물이 살고 있으며 생태계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물은 또한 지구의 물리, 화학적 조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나무와 풀 뿐만 아니라 바다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은 지구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조절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빛은 식물세포에서 광합성을 일으키고 이산화탄소로 부터 산소를 생산해 냅니다. 꿀벌은 꽃과 꽃 사이를 다니면서 수정을 시켜주고 식물은 이로 인해 열매와 씨를 맺습니다. 기러기와 철새들은 계절에 따라 이동하면서 식물의 씨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초식 동물은 풀과 나무를 먹고 육식 동물들은 초식 동물을 먹이로 살아갑니다. 이들의 배변 활동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다시 토양에 영양분을 주고 식물이 잘 자라게 합니다.

생태계 안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은 우리 몸의 다양한 세포처럼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생태계 네트워크가 무너지면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한 예로 최근 바다의 수온 상승으로 산호초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서식처로 사용하는 어류의 숫자도 동시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물을 생산하기위한 숲과 자연의 감소, 도로, 댐의 공사로 인한 서식지 경로의 차단 등,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활동이 증가할 수록 이러한 생태계 네트워크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인간 유전체 (human genome)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는 각 사람마다 작은 염기 서열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유전자만 보면 사람마다 큰 차이는 안 나타나지만 작은 차이가 모이고 모여서 서로 다른 형질로 나타나고 개인의 외모, 취향, 성격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한개의 유전자의 변형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BRCA라고 알려진 유전자에 변이를 가진 사람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10배 정도로 높습니다. 이를 진단할 수 있는 DNA



테스트가 활용되어 미리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중에 25% 정도는 알코올 분해 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변이가 있어서 음주를 삼가해야 합니다. 암 진단도 피 한방울로 DNA와 단백질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왔고, 임산부의 태아에 있는 DNA를 분석해 유전적 질병도 미리 알 수 있는 기술이 나오는 등 생물학적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인간의 DNA 유전체 (genome) 정보를 해독하려는 움직임은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에 미국 정부 기관과 회사 및 다국적 연구진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사람의 전체 DNA 서열을 알아내는데 막대한 돈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DNA 분석 비용이 매우 저렴해지면서 개인의 DNA를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DNA 서열을 분석하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회사를 통해 어느 질병에 취약한지,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전 정보를 이용하거나 DNA를 조작하는 윤리적인 부분은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 보호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 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세밀하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질병을 너무 두려워 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생물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세포에 문제가 생겼을 때 2-3가지가 아닌 셀 수 없고 알기도 힘든 많은 기작이 이를 고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해주시고 문제를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 이니라’ 이사야 55:9).

위에서 언급 된 것 처럼 산업화로 인한 (석탄, 석유 등 이용)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증가가 대기 온도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로 인한 빈번한 가뭄, 홍수, 기후 변화 등으로 전과 같이 농작물을 재배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식량 생산 저하 및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 입니다. 안타깝게도 환경 파괴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부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 보호는 약자에 대한 사랑이며 배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해야할 것은 생명 경시와 지나친 욕심입니다. 우리의 활동이 누군가에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기심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생활 습관을 모두 바꿀 수는 없더라도 마음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환경 및 생명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기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본성에서 떠나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대심방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弟兄姐妹们

·黃彬彬姊妹

回想自己的經驗，才發現信主許久，只探訪過人，卻未曾被探訪過。記得自己過去在帶領姊妹做福音探訪的時候，常常會吃閉門羹，那時就以耶穌的話勉勵姊妹：「那家若配得平安，你們所求的平安就必臨到那家；若不配得，你們所求的平安仍歸你們。」（太10:13）也因此，姊妹們很樂於跟我一起出去探訪，「你們不要的平安，給我得著了」。這次當姜執事提出教會探訪週，我趕緊抓住，怎麼也要來個被探訪、抓住平安的機會。

特別感謝陳傳道在這農曆年前的探訪。很不好意思，我讓他空手而回，但他卻帶來成雙的賀年好禮[Sticker][Sticker]兩個「大有功效」的祝福。《新約聖經》說到兩個「大有功效」：一個是「神的道」。希伯來書4:12，「神的道是活潑的，是有功效的，比一切兩刃的劍更快，甚至魂與靈，骨節與骨髓，都能刺入、剖開，連心中的思念和主意都能辨明。」一個是「禱告的力量」。雅各書5:16，「義人祈禱所發的力量是大有功效的。」

感謝主，陳傳道以「祝福禱告」帶領這次探訪的開始和結束，句句抓住神的應許，給予我家和公司滿滿的祝福；中間更分享「神的話」，以《俄巴底亞書》勉勵基督徒：一、神要建造的，必先拆毀；二、神對世界必有審判；又以「神的話」為我們解釋豐盛神學的錯誤。《俄巴底亞書》講貪愛世界的以東，以自己的聰明智慧有恃無恐、故意不認識神，當神的百姓面臨強敵壓境之時，以東不施援手，反幸災樂禍、助紂為虐、豪取強奪，向神的百姓施行強暴，神因此降罰以東，除去他高處的保障，並使他的勇士驚惶。但神的百姓雖受盡苦楚，卻不至於滅亡，且要成為大火。因為神要建造的，必先拆毀。耶利米書1[Sticker]10，耶和華說：「看哪，我今日立你在列邦列國之上，為要施行拔出、拆毀、毀壞、傾覆；又要建立、栽植。」神的應許必要成就，因為他說：「我要再建立你，你就被建立。」（耶31： 4）而驕傲的以東卻如碎秸，最終被大火滅絕，永遠被剪除。陳傳道分享，在我們信主重生之後，我們雖已得到赦罪和稱義，卻又在犯罪的事上有很多的無奈，甚至到用力抵擋仍舊失敗的地步。



探访使我的属灵生命向前迈进了一步

陈秀芹姊妹

2018年2月1日周四，虽然是严冬，阳光却特别暖和。神的仆人陈玉捷传道、携师母和姜执事来我家探访，给我带来一丝暖意，也带来了神的话语。还把我埋在心里因误会产生的结全部解开了，使

那是因為我們老我的軀殼裡還有軟弱，或是驕傲，或是邪情慾，或是貪愛世界。這一切若不經治死或拆毀，我們就不能被建造成一個蒙神喜悅的生命[Sticker][Sticker]是穿戴新人，在知識上漸漸更新，正如造我們主的形象。瑪拉基書2:2-3，「因為他如煉金之人的火，如漂布之人的鹼。他必坐下如煉淨銀子的，必潔淨利未人，熬煉他們像金銀一樣；他們就憑公義獻供物給耶和華。」基督徒和世人一樣，少不了挫折、失敗、疾病、苦難；但不一樣的是我們有主的同在，神就將諸般的喜樂、平安充滿我們的心。因著信，我們所有的挫折、失敗、疾病、苦難可以成為化妝的祝福。因為我們在各種打擊中被神所試驗，所熬煉。如同熬煉銀子一樣，我們內裡的污穢雜質被拆除銷毀了，我們因此就清淨潔白，更像我們的主。耶穌說：「在世上，你們有苦難；但你們可以放心，我已經勝了世界。」（約16:33）耶穌雖為兒子，還是因所受的苦難學了順從；願我們也在苦難中效法耶穌，學會順服，而不是埋怨神。傳道人探訪的目的，一是為了牧養，關懷照管羊群；二是為了福音的緣故，叫人知道神向我們所懷的意念是賜平安的意念，不是降災禍的意念，要叫我們末後有指望。但我們基督徒歡迎傳道人探訪的目的，卻不是為了屬世的祝福，我們要的是屬靈的、永世的祝福，使我們的靈命更剛強、更豐盛，結滿聖靈的果子。

基督徒生活中，難免會有患難、生病、傷心、難過，需要被安慰、鼓勵的時候；難免會有信心軟弱，需要被激勵、堅固、支持的時候；難免會有怠惰、放縱情慾的時候，需要被提醒、督促、教訓的時候；難免會有陷入罪裡，被罪轄制，享受罪中之樂，需要被教導、甚至問責的時候。願我們在這時候主動邀請牧師傳道人同工來探訪，神的話能攔阻我們不犯任意妄為的罪，並使我們再次認識神和神的大能和其恩典，信心因此得以堅固。並且彼此認罪，互相代求的禱告，可以叫我們的罪和疾病得著醫治，因為神聽義人的禱告。願藉著傳道人的探訪，我們冷淡的心重新被激動，我們下垂的手重新高舉，我們發酸的腿重新得力，我們急快的腳步重新立定（箴19:2，腳步急快的，難免犯罪）。

我的属灵生命又向前迈进了一步。我是在2016年9月11日，由我外孙女带进皇后区韩中长老教会中文堂的，这个日子我会永远铭记在心。来教会听的第一堂信息，神的话语就把我牢牢的吸引住了。陈传道的讲道打动了我的心，从此不管刮风下雨几乎没有间断过，盼望着每个主日崇拜与弟兄姐妹相聚在主里。在这爱的大家庭里我渐渐的成长。

我在决志信主的当天，就进到膳食小组参与服事。侍奉神的时候，心里又增加了许多的乐趣，尤其是预备义卖、包饺子剁馅，来人

少任务重，一整天都是从早忙到晚。我的情况和别人不一样，去教会服事、我得带上不到三个月的小外孙，有时得带上外孙女、外孙两个孩子，就这样我也是随叫随到，不管天气怎样我从没迟到过，也没发过怨言。有时家里顾不上，女儿和姑爷下班吃不上饭，对我有意见，我也是一笑了之。因2018年服事上的变动，让我一时很想不开，心里有很多委屈，一度产生离开教会改换别的教会想法，可又舍不得陈传道的讲道。就在我犹豫不定的时候，神的仆人来到我家探访，用神的话语打开我的心结，使我又重新站起来，从误会的阴影中走了出来。

은혜와 감동이 넘친 대심방

4교구 통아일랜드 1지역 정혜경 권사

소망과 기대속에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가지 변화가 있게 되어 그것에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직 모든 것이 새롭고 겨울의 한복판인 1월 중순부터 춘계 대심방이 시작되면 가장 바빠지는 분들은 역시 교구전도사님들이다. 각 가정에서도 새해에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 제목을 준비하며, 집 안팎을 치우고 마음을 비우며 심방 받을 준비를 하게 된다.

금년에는 우리 지역원들에게도 여러가지 일들과 변화가 많이 있다. 두 분이 명예 권사님이 되셨고,그 중 한분은 연초에 폐수술을 받고 가료중이시다.

지난 1월 26일(금)은 우리 LII지역 대심방날이었다. 한 가정은 주 중에 받으셨고(이봉희권사), 또 낮에 받으신 분(김정운집사)도 있어서 그날 오후 6시 지도원 정철호집사역을 선두로 4가정이 저녁에 심방을 받게 되었다. 작년에는 교회 사정으로 교구장 전도사님 혼자 오셨는데 금년에는 감사하게도 함미희전도사님과 송요한목사님이 함께 오시게 되어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었다.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전도사님의 사랑의 기도,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나니 모든 근심이나 문제들이 다 사라진듯했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조미영 집사역으로 가니 조집사와 작은 아들 재용이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남편은 주재원으로 쿠웨이트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있고, 큰 아들은 대학 재학중 군대에 가서 복무중이다. 온갖 맛있는 간식이 정성껏 준비된 테이블에 앉아서 먼저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의 소망의 메세지를 들은 후에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알아보니, 그날 대심방이 있다고 전해들은 남편 이종희집사가 한국에서 카톡으로 긴 기도제목을 보내왔다. 뼈곡히 적은 기도 제목중에 두가지가 유난히 가슴에 와 닿았다. 두 아들(재혁,재용)이 성령 세례 받도록, 북한 선교를 위해서였다. 송목사님께서 북한 선교에 관한 기도가 무척 감동적이라며 함께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셔서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가족들이 떨어져서 지내지만 가장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다. 여러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부모님의 든든한 기도 후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시기에 있는 재용이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학교생활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 다음 집인 유석희/유수정집사역에서는 유집사의 언니 김수자집사도

探访结束了，我的心情久久不能平静，回想起来真是可怕。我这次的软弱，差一点离开了神，我决对不会再犯同一个错误。在今后日子里，我要多多学习神的话语，常常祷告和神沟通，使自己扎根在耶稣基督的真理里面，忠心到底，永不偏离。



개인 사정으로 함께 그곳에서 심방을 받게 되었다. 유집사부부는 사정상 주일에 일을 하고 있어서 마음은 원이나 오랫동안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어서 몹시 안타깝다. 그래도 구역예배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기쁨으로 예배 장소를 제공하니 참 감사한 일이다. 하루 속히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한다.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신 어머님 김영복권사님도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과 찬송, 기도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환대를 받은 후 감사와 기쁨으로 대심방을 마쳤다.

심방이 끝난 이튿날에 우리 지역원들의 기도제목을 모두 지역 카톡에 올려 놓고 계속 함께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는다. 각자가 처한 환경과 형편이 달라도 주 안에서 한 지역원으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며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좋은 지역원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신년 벽두에 담임목사님을 대신하여 주님을 모시고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와 찬송가운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더욱 믿음 위에 든든히 서도록 복된 심방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지역원들과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아가페 3월호 2018년 은혜의 대심방 기사에 4교구 글이 잘못 기재되어 수정된 기사를 4월호에 올립니다.

죽 쑨 하루, 기쁘지 아니한가

편집부

Prologue 죽의 기원

‘훌륭한 집 머느리는 스무 가지 죽을 끓일 줄 알아야 한다.’ 라는 속담이 있다.

다행이다. 권장의 안수집사들은 해물죽 하나만 잘 끓일 줄 알면 된다.

안수집사회(스테반회)의 ‘죽쑤기’는 사순절 기간의 가장 큰 이벤트이다. 그 역사가 길지 않지만 몇 해 전부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끓여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왜 하필 ‘죽’이었을까?

서양의 오트밀과 비슷한 죽은 수많은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 밥을 소화시키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만들어 먹는 범아시아적인 보편 음식이다. ‘죽’은 ‘평안’과 ‘회복’을 가져다 주는 음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수집사회의 ‘죽쑤기’는 성도님들을 향한 섬김의 표현이 아닐까 싶다.

Scene #1 작전회의

2018년 1월21일 오후 4시 새가죽실. 안수집사회 임원진들이 모여 사순절 ‘죽쑤기 전략회의’를 가졌다. 총 지휘관 김지현, 작전참모 박정봉, 보급담당 최성호, 자금담당 홍성익, 김성민, 후방지원 정기영, 오성태, 정해성. 올해 목표를 ‘해물죽’으로 정하고 3월 17일 D-day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Scene #2 새우 등 터지다

새우값이 금값이다. 삶지 않고 머리와 껍질을 벗겨낸 새우가 파운드당 8불. 학~! 최소 필요량이 60 파운드인데, 새우값만 480불이다. 식감을 살리기 위해 추가하는 오징어 값도 약~! 소리나는 가격으로 치솟았다. 다행히 ‘함아무개’ 장로님의 도움으로 새우는 절반 값에 구매했다. 명색이 해물 죽인데 금값 새우 덕에 안수집사회 등 터질 뻔 했다.

Scene #3 D-10Hr. 칼잡이들이 모이다

3월16일 저녁 7시. 친교실 주방에 전투병들이 한사람 한사람 모여들었다. 오후에 보급된 재료들을 정리해놓고 당근 양파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썰기에 돌입, 김지현, 계대원, 정영철, 강성근, 최성호, 정해성 등 안수집사님들이 칼을 들었다. 지난해까지 차퍼와 믹서를 이용해 새우와 야채들을 갈아서 사용했지만, 올해는 ‘식감’을 위해 모든 재료들을 칼로 잘라 준비한다. 양파 50파운드와 당근 25파운드, 그리고 올해 새롭게 추가된 표고버섯 양송이 파 부추까지 칼로 잘게 다져야 하는 적지 않은 작업량이다. 칼을 다루는 솜씨도 능수능란하고, 사용한 도구와 그릇들을 바로바로 씻어 정리하며 평소 가정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이들 보다 두시간 먼저 와 100파운드의 쌀을 씻어낸 최성호 집사님, 칼 솜씨가 남다른 내공 깊은 계대원 집사님, 당근 다지기에 콤플렉스를 보여준 강성근 정영철 집사님, 닭고 쓸고 굶은 일 도맡은 김지현 집사님, 큰 솜에 다시마, 무, 멸치, 마른 표고버섯 등 다양한 재료를 놓고 육수를 끓여낸 정해성 집사님, 굶주린 동료들을 위해 라면 한 박스 챙겨와 버섯썰기에 재능을 보이신 정기영 집사님, 정사용 집사님까지 안수집사님들은 진정한 칼잡이들이었다.

Scene #4 오징어볶음의 비밀

수고하는 안수집사회를 위해 오징어볶음을 저녁반찬으로 준비했다. 그런데 오징어 볶음에 몸통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유는 이랬다. 그라운딩한 새우만으로는 부족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오징어를 추가재료로 선택하고 잘게 다졌는데, 껍질을 벗기기 어렵고 거친 식감의 빨판이 있는 오징어 다리는 따로 모아놓았다. 여기에 삼겹살과 매콤한 소스를 곁들여 오징어볶음이 만들어진 것. 잘 먹었다~!

Scene #5 D-7Hr. 고민에 빠지다

지난해까지 안수집사회의 죽쑤기를 책임져 온 함음식, 차상남, 채영주 트리오가 장로임직으로 은퇴(?)함에 따라 경험이 많지 않은 새 안수집사회 임원진은 독자적인 레시피를 준비했다. 밥을 지은 후 죽을 끓이지 않고 불

린 쌀을 볶은 후 미리 준비한 육수에 끓이기로 했다. 하지만 초보자들. 무모한 도전을 위해 한밤 중 죽 두 솥을 동시에 끓였다. 당일 저녁 중국어에 배부 청년들이 친교를 위해 준비했다가 남겨둔 밥 한 솥이 큰 도움이 되었다.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 결과는 불려서 볶은 쌀의 승리. 식혜에 동동 뜬 잘 삭혀진 밥알처럼 이쁘게 불려져 식감까지 유지한 새로운 레시피의 죽으로 최종 결정됐다.

Scene #6 D-4Hr. 새우잠 자는 회장님, 새벽이슬같은 회원들

올해 첫 ‘죽쑤기’를 진두지휘한 김지현 집사님이 밤을 꼬박 지새웠다. 새로운 레시피 확인 작업이 끝나고 모든 밥솥에 볶은 쌀과 육수로 가득 채워지고 개스불만 당겨 끓이면 되는 상황. 잠시 여유를 찾고 친교실 테이블에 엎드려 새우잠을 잔다. 그러나 그도 잠시. 새벽 4시도 안되어 최성호, 정기영 집사님이 죽을 끓이기 위해 도착했고 김지현 집사님의 새우잠은 쪽잠이 되고 말았다. 이내 개스불이 점화되고 500명 분의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예배위원장 정기영 집사님은 정장 차림으로 가장 큰 솥의 죽을 쑤느라 땀을 뻘뻘~, 최성호 집사님은 전날 준비한 각종 야채를 끓는 죽 솥에 골고루 쏟아붓느라 불끈 솟는 힘차량이다.

Scene #7 D-1Hr. 죽쑤 하루 기쁜 하루

죽의 고소한 냄새가 교회 전체에 퍼져가며 안수집사님들이 배식준비를 위해 속속 도착한다. 정철호, 이광운, 남정현, 차광혁, 신기만, 오성태, 허강, 정영철, 김만, 정사용, 박정봉 집사님 등... 펄펄 죽 끓던 솥들이 친교실로 옮겨지고 신속하고 정확한 배식을 위해 단무지와 해물죽이 컨테이너에 담겨

밥을 쌓아간다. 이전 속도전이다. 죽이 식기 전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성도님들께 전달되어야 한다. 몇 년 간의 내공이 쌓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능수능란하게 배식이 이루어진다. 푸고 담고 뚜껑 덮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성도님들의 반응도 좋았다. “올해 해물죽 맛있어요! 안수집사회 최고!”

Epilogue 죽이 주는 기쁨

이전의 ‘죽’은 서글펐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하고 거룩한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서 팔아넘긴 에서를 유혹한 것이 ‘볶은 죽’이다. 힘들고 궁핍한 삶을 살아온 조상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피죽 한 그릇’이다. 아프고 병들어 소화시킬 능력이 안되어 찾는 음식이 죽(粥)이다. 예전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매우 고급진 음식으로 구분되어진다. 가격도 웬만한 식사 한끼보다 비싸다. 이전의 ‘생계형 끼니’가 아니라 이제는 ‘별미’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죽’과 같지 않을까? 세상의 이익에 눈 멀어 진리를 멀리했던 슬픈 붉은 죽이 변하여 ‘오직 예수’를 외치며 복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흰죽이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영생을 얻었고, 삶의 분명한 목적이 생겼다. 사순절을 통해 영과 육체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들을 담아 더 ‘맛있고 귀한’ 섬김과 충성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죽 쑤 하루가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문인숙 권사

3월에 온세상을 하얗게 덮는 눈이 내렸다. 역시 뉴욕의 예측할 수 없는 날씨이다. 사순절 새벽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벽에 눈을 밟으며 나오는 길에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전에 오시기 힘들시겠네...”라는 걱정이 먼저 앞선다. 그러나 권장가족들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눈길이 두렵지 않음을 보여주며 많은 성도들의 예배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어질 줄 모른다.

5시10분 교회에 도착하여 보니 파킹장 여기저기서 눈치우는 소리가 들린다. 벌써 밤에 한번 치우신 듯한데 다시 쌓인 눈을 치우시는 듯 보였다. 관리집사님들과 차량팀의 수고하시는 봉사의 모습에 감동받은 새벽길이다. 힘든 표정도 없시고 입가엔 웃음이 가득하며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아침인사를 나누며 눈을 치우시는 모습이다.

교회 앞의 인도는 1블럭이 전부 깨끗이 눈이 치워졌다. 걸어오시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편하게 해주신열심과 정성을 다한 봉사에 감사를 드린다. 감동먹고 사진을 한장 찍었더니 시온의 대로를 보는 느낌이다. 주위에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달려오는 우리에게겐 주님 준비해 주신 시온의 대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며 감사드린다. 오늘도 우리는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함께 하는 정성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 드린다. 홀로 영광 받으셨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발길과 차량은 계속되어지고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소서.



성경공부 하 GO! 퀴즈 풀 GO! 상품 받 GO!

출제 김기호 장로

아가페 409호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삼	독	자		기	드	피	단
날		수	기	도			탁
신	성		상	하	죄	목	치
	익	보		난		마	고
		리	신		우	리	
가	이			상		다	기
이		거	괴	진	선		강
오	연			하	법	구	순
		대	지	중	지		집

아가페 408호 문제정답

1. 참여방법 낱말을 다 맞춘 후 정답지를 친교실에 비치된 응모함에 넣어 주세요.
2. 응모기간 4월 1일(주)-4월 25일(수)
3. 당첨자 발표 정답지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아가페 2018년 5월호에 발표합니다.
4. 상품안내 퀴즈장로교회 친교실 식권 10장씩

가로 푸는 열쇠

1.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 (창 2:9)
3. 우리 교회 4월의 표어
5. 성경 역사서 중 여덟번 짰. 상.하로 됨
6. 작은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 (계 18:22)
8. 응당 해야 할 본분 (신 25:5)
10. 곡조의 진행되는 시간을 헤아리는 단위 (음약)
11. 황포하고 사나움 (삿 9:24)
12. 식물의 큰 줄기에서 뺏어나간 가는 줄기 (창 30:37)
13. 장로교회 교직의 한 직책으로서 안수를 받아 장립하며 교회의 모든 운영에 참여하는 지도자 (행 14: 23)
14. 유다의 남방에 있는 시므온의 성읍 (대상 4:33)
15. 자질구레하게 생긴 돌 (왕하 19:28)
17. 성질이 사나운 짐승 (고전 15:32)
18. 경축, 기념 행사에서 화포를 쏘아 공중에서 불꽃이 일어나게 하는 것 (명사)
20. 자꾸 들볶거나 괴롭게 굴어 귀찮게 하는 짓 (국어)
21. 바울의 동업자 유대인 아굴라의 부인 (딤후4:19)
22. 스스로 잘난체 하는 일 (국어)

세로 푸는 열쇠

1. 살아 있는 이 세상 (관주성경 사 38:11)
2. 외국과 장사 거래하는 사람 (관주성경 사 23:8)
3. 고압 전류를 통하게 만든 사형용 의자
4. 오직 OO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롬1:17)
7. 어린 아이를 업어 주는 계집 하인 (명사)
9. 기독교의 원리를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명사)
10. 레위 사람. 미가의 아들 (대상 9:15)
11. 사로잡힌 적군이나 볼모로 잡인 사람 (민 24:22)
12. 에벳의 아들. 세겜인을 모아 아비멜렉을 반역할 것을 도모한 사람 (삿 9:26)
13. 꽃 중의 꽃. 꽃의 여왕 (국어)
14. 아셀 사람 (대상 7:33)
15.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제 힘으로 한 살림을 이름 (국어)
16. 손 씻 사람의 손 아랫 사람에게 대한 사랑 (국어)
18.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 (국어)
19. 무언에 끼우기 위해 만든 둥근 물건 (창 24:22)

정답자 김은순 권사(안나), 사은주 교우(1교구 플러싱), 문인숙 권사, 신정희 권사(안나), 임광순(3교구 베이사이드)

*정답자 추천은 임승룡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2018년 2월 새가족 안내 WELCOME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환영회 안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지하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Korean Ministry



Chinese Ministry



새가족위원회 - 20년의 섬김과 은혜



새가족부 부위원장 김경미 권사

감사와 은혜의 섬김

교회 안의 많은 섬김 중에 특별히 새가족부를 섬기게 하셔서 20년의 시간을 우리 교회를 찾는 새가족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부 섬김은 특별한 은혜가 참 많습니다. 전도를 받고 오신 새교우들이 매주 시간시간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7주간의 새가족공부를 마칠 때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나 은혜롭죠.

그렇게 새가족공부를 마치고 믿음의 고백을 한 새교우들의 믿음이 자라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의 이곳저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에 또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신 분들 또한 새가족공부를 하며 새로이 첫 신앙의 은혜를 회복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새가족수로 후 우리 교회에서 건강하게 믿음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 인해 새가족부원으로 이들을 섬길 수 있음을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새가족부 위원들이 맡은바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볼 때에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새가족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새가족부 위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44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실천하며 굳건하게 성장,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전도로 힘쓰며 새가족들을 잘 섬기는 새가족위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